

코스피	-101.49	2,676.19
코스닥	-34.20	779.33
환율 (원/달러)	-10.20	1,356.00

휘발유(원/리터)	1708.79	▼ (-0.11)
경유(원/리터)	1545.90	▼ (-0.18)
LPG(원/리터)	1016.13	▲ (+0.10)
(한국 평균)		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
WTI(달러, 2일)	73.52	▼ (-2.79)

“총수 집으로”...재계 ‘묻지마 시위’ 몸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 전국 삼성 전자노동조합(전삼노) 조합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등기업원이 아니라 사측 협상 대표자가 아니다. 심지어 그는 유럽 출장 중이라 이날 집에 없었다.

재계 주요 기업들이 ‘묻지마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라며 무조건 총수 집 앞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탓이다.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전삼노가 이 회장 자택 앞으로 향한 이유는 총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이 회장이 나서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8일 총파업을 시작한 전삼노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사측과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총수 자택을 찾아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한화 오션 노조는 지난달 15일 거제사업장에서 7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면서 서울 종로구 기동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집앞에서도 피켓시위를 했다. 2009년 해직된 쌍용자동차(현 KG모비티) 노동자 일부도 서울 강남구 광재선 KG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보상금 10억원씩을 달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총수일가 자택 근처에 사는 이들은 경찰서, 구청 등에 무분별한 시위를 멈추게 해달라고 탄원서 등을 내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피켓 문구가 노출되고 소음에 시달리는 한편 쓰레기 투기 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해진다.

지난 2022년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전삼노, 노사 협상 창구 아닌데도 이재용 회장 자택 앞 기자회견 정의선·김승연·이재현 등도 집회 ‘타깃’...일부선 ‘향당 주장도 주민 피해·교통 정체 등 호소’...“건전한 노사 관계 조성해야” “적은 지분으로 그룹 지배 총수 경영 문화의 부작용” 지적도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근처에서 한 달 넘게 도 넘은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매일 관광버스를 타고 정 회장 집앞으로와 ‘GTX-C 노선의 은마아파트 하부 통과를 반대한다’며 소란을 피웠다.

같은 해 초에도 민주노총 택배노조 150여명이 산하 CJ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장충동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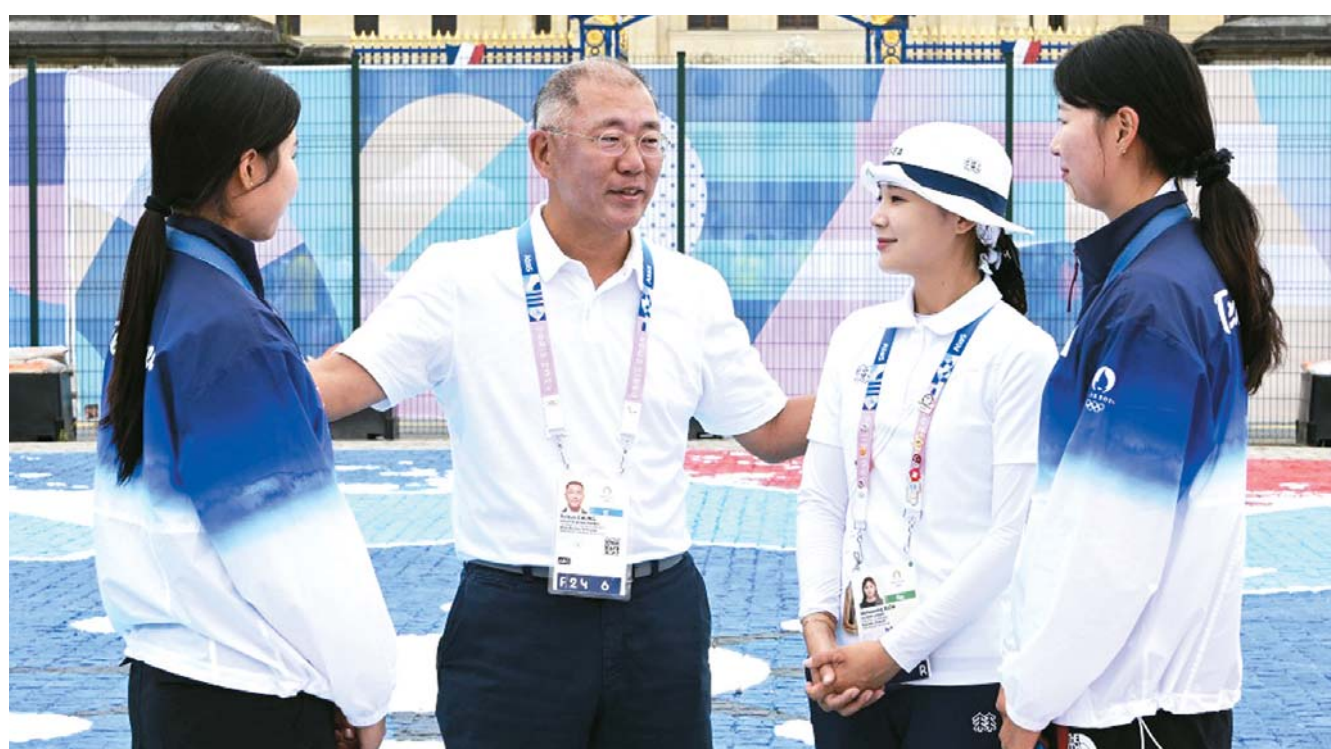
의대회를 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집앞에서는 술을 마시며 삼겹살을 먹는 ‘삼겹살 폭식 투쟁’도 펼쳐졌다. 주가가 떨어졌다며 기업 총수 집앞에서 소동을 피우는 경우도 다반사다.

일각에서는 재계 총수가 그룹 내 굵직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경영 문화가 같은 약속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소한의 지분으로 주요 계열사 경영권을 장악해 권리를 누리

는 만큼 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나라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20대 국회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다양한 형태로 발의되고 있지만 총수 집 앞에 가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한 노동 분야 전문가는 “산별노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정 수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체질과 재계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노조는 ‘무조건 투쟁’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버리고 사측은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등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정의선의 리더십, 韓양공 신화 써 내려간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3일(현지시간) 파리 대회 여자 양궁 개인전 시상식 직후 남수현(왼쪽 첫 번째), 전운영(오른쪽 두 번째), 임시현(오른쪽 첫 번째)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 격려했다. 정 회장은 2005년 아버지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대한양궁협회장에 취임해 지금까지 연임하고 있다. 지원은 확실하게 하면서도 선수단 선발이나 협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일관한 리더십으로 한국 양궁의 신화를 함께 하고 있다. **백민**

난기류 안전상 일반석만 라면 폐지?...대한항공 형평성 논란

이슈분석

최근 난기류의 급증세에 따라 대한항공이 기내 안전을 이유로 이코노미석 탑승객에 대한 라면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등석과 비즈니스(프레스티지)석 탑승객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지속할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대한항공이 원가절감과 함께 객실 승무원들이 귀찮아 하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안전과 서비스 간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장거리 노선 기내 간식 서비스 개편에 따라 이코노미석 라면 서비스를 중단한다. 항공 난류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차다. 항공 난류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거나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난기류 중 주로 넓은 범위에 걸쳐 수시로 발생하는 불안정한 공기의 흐름의 총칭으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런던발 싱가포르행 싱가포르항공 321편은 안다만해 상공을 통과하던 중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요동쳤고, 탑승객

사측 “고밀도 좌석, 여러 개 동시 전담...화상 입 가능성 ↑” 노조 “산업 재해 노출...본연 업무 집중, 회사 정책 적극 지지” 시민 “일등·프레스티지석은 피해 가나...부당 차별 대우” 지적

1명이 사망하고 객실 승무원을 포함한 1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영국 레딩대학교 연구진은 기후 변화로 인해 북대서양의 한 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의 난기류가 1979년에는 연간 17.7시간 지속됐지만 2020년에는 27.4시간으로 54.8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이유로 대한항공은 이코노미석에 대한 컵라면 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발생 건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뜨거운 물을 사용해야 하는 특성상 컵라면으로 인한 화상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코노미석의 경우 좌석 밀집도가 높아 객실 승무원이 여러 개를 동시에 옮겨야 하고, 테이블도 작아 내용물을 쏟게 되면 취식객의 옆자리에 탄 탑승객이 화상을 입을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현재도 상황이 이렇면 난기류 발생 시에는 객실 승무원과 승객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인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화상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 고객을 대상으로는 라면 서비스를 유지하고, 자회사인 진에어에서는 난기류에 대비해 종이 피켓백에 담아 제공하는 등 유상판 매출 이어갈 계획이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가 절감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전면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소식을 접한 A씨는 “위험하니까 때문에 서비스를 하지말라는 건 전형적인 ‘군대식 발상’”이라며 “여행 컨텐츠 측면에서 보면 비행기 안에서의 즐거움을 줬다 빼앗는 셈”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B씨는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에는 난기류가 피해간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빈정 상한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라면 폐지에 따른 이코노미석 고객 만족도 변화 시뮬레이션할 수 차례 진행했고 반발도 충분히 예상했지만 고심 끝에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 홍보를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실 내에서도 보도자료 작성에 대

해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지만 객실승무원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결국 발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이코노미석 승객들에게 제공할 신규 기내 간식은 콘덕·피자·핫포켓 등 풀타임으로, 컵라면보다 단가가 2배 가량 높아 비용 절감 차원에서 불 문제일 수 없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 관계자는 “객실 승무원들은 좁은 갤리(조리실)에서 워터 보일러 등을 다루며 손이나 팔을 데는 등 산업 재해에 노출돼 있다”며 “고객 서비스가 줄어든 만큼 기내 보안 등 운항 안전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회사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항공이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 고객에게는 객실 승무원으로 하여금 금지 라면을 끓여 대접에 담아 내어주는 방식을 고수하는 점에 대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 출신 김선아 수원과학대학교 항공관광학과 교수는 “상위 등급의 좌석을 구매한 승객이 라면 하나를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해당 항공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좌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공간이 넓은 만큼 대한항공이 서비스와 안전 사이에서 나름의 타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8월 첫째 주 정기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2024년 8월 1주차 주간집계
단위: % 조사기관: 리얼미터(2024년 7월 29일~8월 2일)
● 긍정 ● 부정
그래픽=김베터 기자 seuk22@ekn.kr

尹, 국정수행 긍정 35% 문턱 못 넘었다

3주 연속 상승하던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하락해 30%대 초반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

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4일 발표한 8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2.8% (매우 잘한다 16.2%·잘하는 편 16.6%)로 집계됐다. 전주 34.7% 대비 1.9%포인트(p) 떨어졌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 등 호재로 3주 연속 상승하면서 3%대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4주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30%대 초반으로 회귀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3.2% (잘 못하는 편 10.6%·매우 잘 못함 52.7%)로 전주(61.8%)보다 1.4%p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여전히 오차범위(±2.0%p) 밖인 30.4%p로 큰 격차를 유지했다.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이틀간 조사해 4일 발표한 8월 첫째주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1%p 높아진 38.5%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2%p 높아진 36.3%이다. 양



‘검은 금요일’ 세계 500대 갑부 182兆 증발

빅테크株 급락, 베이조스 20조원 ↓ ‘최고 갑부’ 머스크도 9조원 감소

미 증시가 하락하면서 ‘검은 금요일’로 불린 지난 2일 세계 최고 갑부들의 자산 평가 가치도 182조원 넘게 증발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아마존 창업자이자 세계 2위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순자산 평가 가치가 152억 달러(약 20조 7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조스를 비롯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상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자산 가치도 총 1340억 달러(약 18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베이조스의 순자산은 하루 만에 152억 달러 줄어 들면서 1910억 달러(약 260조)로 기록됐다. 베이조스의 순자산 감소 규모는 지난 2019년 4월 이후로 재산 분할했을 때와 지난 2022년 4월 아마존 주가가 14% 폭락했던 때에 이어 3번째로 큰 수준이다. 세계 1위 갑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산 역시 65억 7000만 달러(약 8조 9000억 원)가 줄었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다. 4위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33억 9000만 달러(약 4조 6000억 원), 6위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는 34억 5000만 달러(약 4조 7000억 원), 7위 래리 엘리슨 오라클 공동 창업자는 43억 7000만 달러(약 5조 9000억 원) 씩 자산 가치가 감소했다. 미 증시는 최근 상승 행진을 주도해온 인공지능(AI) 열풍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하락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실업률 등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일 하루에만 2.43% 급락했다. 주요 기술주 가운데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실적 부진에 주가가 8.78% 급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2.07%)·엔비디아(-1.78%)·메타(-1.93%)·테슬라(-4.24%)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주가가 줄어 들었

김기영 기자 giryeong@ekn.kr

‘巨野 단독입법 vs 대통령 거부권’... 힘겨루기 언제까지

거대 야당의 국회 단독 입법처리와 그에 맞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무한반복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오전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 위한특별조치법)’ 표결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으나 야당이 이를 강제 종결시키기로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야당 단독 통과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법안·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횡수는 50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으로 맞불을 놔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 쌍륙검법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총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총 7회 거부권을 행사해 취임 후 총 15회 거부권을 발동했다. 올해안에 20회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25만원법’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선 그동안 타협하지 않았다. 그

민주당,尹 정부 출범후 특검·탄핵 등 50회이상 법안 단독처리 윤 대통령, 취임 후 15차례 거부권 행사...연내 20회 넘을 듯 22대 국회 출범 후 민생법안 처리 0건... 끝없는 정쟁만 남아

주요 야당 단독 법안 처리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
양곡관리법(2023.3)
간호법(2024.5)
노조법(2023.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2023.11)
방송법(2023.11)
방송문화진흥회법(2023.11)
쌍륙검법(2024.1)
이태원 참사 특검법(2024.1)
채상병 특검법(2024.5)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8)
방송4법(2024.8)

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5만원법’은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 결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

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처리된 이진숙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정혜진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은가.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들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



윤석열 대통령

핵안만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늘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역시 탄핵안 처리에 앞서 자신 사퇴한 전임 두 위원장과 달리, 현재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버티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

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해 “야당이 무리한 법안들일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심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전체 16개 중 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입장이 극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이상 이같은 대치구도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이나 소모적 정쟁에 몰두하느라 국회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쪽이 입장을 좁히거나 타협을 하려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 어느 쪽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美 증시 급락에 코스피 ‘패닉’... “분할 매수 유효”

뉴욕증시가 이틀째 급락했다.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의 실업률 등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국내·외 증시가 패닉에 빠졌다.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급락했고, 코스피는 2700선이 무너졌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 금리인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매도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1% 하락한 3만9737.26으로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지수는 2.43% 급락한 1만6776.16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미 지난 1일에도 다우지수는 1.21%, 나스닥도 2.30%가 빠진 바 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큰 악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매도 심리유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는 7월 실업률이 전달(4.1%)보다 0.2%포인트 늘어난 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도 작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46.8을 나타냈다. PMI가

美 경기 침체 우려 부각... ‘AI 거품론’에 반도체도 약세 코스피도 2700선 무너져... 증권가선 “비중 유지·확대”



뉴욕 증권거래소의 한 트레이더가 전광판을 주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50 이하면 경기 위축 시그널로 읽힌다. 여기에 미국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투심이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일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전장 대비 5.18% 하락한 4607.8로 마감했으며 인텔 주가는 26.06% 내린 21.48달러로 마감했다. 엔비디아 역시 지난 주말 1.78% 내린 107.27달러를 기록하며 부진을 이어나갔다. 국내 증시도 ‘시계 재로’ 상태다. 미국

증시 영향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주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4.21% 하락한 7만9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약 10% 하락해 17만3200원까지 내려왔다. 이외 DB하이텍,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업종 관련주들도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내 증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이

부진하자 코스피 지수도 3.65% 내린 2676.19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27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6월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단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주식 비중 축소보다는 확대를 권하고 있다. 시장의 우려가 지나쳐 전체적인 증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됐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2700선을 하향 이탈하며 경로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현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추격 매도 실익은 없다”며 “외국인 선물매도는 점진에 달했고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도 절반 이상 진행됐다. 단기 등락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비중 유지·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반도체주에 대해서도 안심하라는 의견이 나온다. 인텔을 제외한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대부분 양호하며, AI 관련 투자도 증가세이기 때문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는 투자자의 눈높이가 높았다는 점을 제외하고 양호했다”며 “빅테크의 자본 지출도 확대되는 추세이고 한국 반도체 수출도 호조라는 점에서 반도체 및 IT 하드웨어 업종의 비중은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티메프, 채권자수만 11만명 ‘자율구조조정’ 쉽지 않을 듯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지난주 법원으로 부터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을 승인 받으면서 ‘ARS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ARS를 신청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대체로 금융기관에 한 정대 자율구조조정에 성공했지만, 티메프의 경우 전자결제지급대행(PG)·판매자 등 채권자 규모가 많아 ARS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산 지연 사태로 구매대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등이 지난 25일 위메프 본사를 찾아가 환불을 받고 있는 모습.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지난 2일 티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티메프의 회생절차 진행은 오는 9월 2일까지 보류된다. 보류기간은 1개월 단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전체 채권자가 많아 자율 협의가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다. 만일 여기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반대하면 ARS는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대표자심

법원, 티몬·위메프 ARS 프로그램 적용 지원 승인 PG·카드·판매자 인원 많고 채권 비중도 2/3 차지 정부 자율합의안 유도...8만명 소상공인 향배 관건

위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황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ARS 승인에 따라 티메프는 한 달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카드사, 소상공인 등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외부 자금 유치, 인수합병(M&A) 등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법원은 오는 13일 수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생절차협의회를 연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후 여러 기업이 실제로 이를 활용해 구조 조정 방안에 합의하고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문제는 티메프 사태의 전체 채권자 수가 11만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ARS 프로그램 적용에 성공한 회사는 대부분 채무구조가 단순하고 채권자도 적었던 것과 달리 티메프는 금융채권의

문 내용과 현장 검증 결과 등을 종합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주요 채권자는 카드·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이며, 8만 명에 이르는 업소 소상공인이 다수의 채권자로 알려졌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티메프 정산 환불 지연 사태가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업체 지원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정문·오기형 의원은 이달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참석하고, 티메프사태 피해업체 80여곳 이상이 참석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피해 구제와 책임 소재를 놓고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서예은 기자 pr9028@ekn.kr

여름 휴가철, 캠핑장 가스사고 증가세

2019년~2023년 5년간 부탄가스 사고 89건...전체 사고의 20.1%

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가스사고 발생비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한 ‘2023년 가스사고연감’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는 총 89건으로 전체 가스사고의 20.1%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총 93명에 달했다.

특히 이동식 부탄연소기 가스사고는 연소기를 사용 중인 경우(40.4%)보다 보관·가열 중(59.6%)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 원인은 부탄캔을 화기 주변에 방치하거나 음식물 조리 중 부탄캔이 과열되는 경우, 인덕션·난로 등 상단에 보관하는 등의 부주의로 파악됐다.

여기에 여가 및 야외활동 증가로 국내 캠핑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동식 부탄연소기 등 가스용품 사용이 확대되 관

련 사고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가스안전공사의 설명이다.

특히 2023년 7월과 8월에만 총 19건의 가스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사고의 약 20%를 차지한다. 작년 8월에는 총 12건의 사고가 보고되어 다른 달에 비해 높은 사고 발생률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휴가철 동안 부탄가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경기 오산시에서는 캠핑카 내부에서 부탄캔이 미상의 열원에 의해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파열 방지 기능이 작동, 분출된 가스도 인해 화재가 발생했

다. 이 사고로 인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여름철 휴가 기간 동안 부탄가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는 65건으로 2022년 39건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화로를 텐트에 두고 자거나 차박 캠핑 중 등유, 부탄가스를 이용한 휴대난로를 사용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부탄가스 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탄캔의 부적절한 보관,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과열, 사용 중 부주의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SK하이닉스 르네상스의 원년을 만드는
ONE TEAM PLAY

SK하이닉스 4만여 구성원들은 힘을 합쳐
 글로벌 No.1 AI 메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쿠팡, 네이버처럼”...이커머스-PG 분리 검토

티메프사태 재발 막기...PG사 경영 이커머스, PG사 자금 손 못 대도록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PG사를 경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때 PG사의 자금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기업인 쿠팡은 PG사를 경영하다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사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페이네셔널로 떼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PG사로 외부 업체를 사용하고,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할 때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용 발생 문제, 현재 경영

을 하는 업체들에 가해질 충격 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검토하고 있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지도 금융당국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국회 정부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등록업체인 PG사에는 경영 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PG사도 적자가 나는 등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부위 소속 김남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예금금리↓대출금리↑...금융시장 ‘혼란’

수신금리 0.2%p↓...대출 연 3.03~5.204% 지난달 比 0.19%p↑

은행권의 수신(예금)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여신(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5일부터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2%p포인트(p) 낮춘다. ‘국민수퍼 정기예금’ 고정금리는 현재 만기 기간과 이자 지급방식에 따라 연 1.9~2.9%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오는 5일부터는 6개월 이상 상품의 금리가 최대 0.2%p 하향 조정돼 금리 수준은 연 1.9~2.7%로 바뀐다. 단위 기간 금리 연동형 상품 금리는 최대 0.15%p 떨어져 연동(회전) 단위 기간별로 연 1.85~2.4%인 금리 범위 가 연 1.85~2.25%로 조정된다. 일반 정기예금 금리는 만기 기간에 따라 0.15~0.2%p 낮아지고, 회전형 장기정기예금의 금리도 연 2.35%로 0.2%p 떨어진다.

앞서 신한은행은 2일부터 수신상품 기본금리를 최대 0.2%p 인하했다. 신한 S드림정기예금, 풀편한정기예금 등 정기예금은 상품별로 0.05~0.2%p 내려 모든 상품의 금리가 연 2.95%로 같아졌다. 신한연금저축왕적금, 신한S드림적금 등 적립식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각 0.1~0.2%p, 0.05%p 떨어졌다. 신한ISA 정기예금은 16일부터 3%에서 연 2.95%로 0.05%p 낮아진다.

반면 은행 대출금리는 더 오르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 5년물 기준)는 연 3.03~5.204% 수준이다. 약 10일 전인 지난달 19일의 연 2.84~5.294%과 비교해 하단이

0.19%p 오하러 높아졌다. 이에 따라 6월 중순께 3년 만에 도래했던 ‘2%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사라진 상태다.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03~6.548%로 하단이 0.07%p 올랐다.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3.345%에서 3.204%로 0.141%p 떨어지고, 변동금리 지표인 코픽스(COFIX)가 3.52%로 유지된 가운데서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은행들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등 최근 한달간 가산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대출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5일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고 29일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했다. 오는 7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p 높인다.

국민은행도 지난 2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3%p 높였다. 앞서 지난달 3일과 18일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높이고, 29일부터는 대환과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제한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엇박자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기 둔화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에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시장금리가 떨어지며 예금금리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 확대를 경계해야 하는 만큼 대출금리 인상을 지속하며 결국 예대마진도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송두리 기자

“엔화 오른다”...5대銀 엔화 잔액 올해 첫 감소

올해 내내 늘어났던 5대 은행의 엔화 예금잔액이 지난달 처음 감소했다. 지난 달부터 본격적으로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선을 넘어가자 엔화 예금 투자자들이 차의 실현에 나선 것이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엔화예금 잔액은 약 1조 2111억엔으로 나타났다. 전월 말(1조 2929억엔) 대비 818억엔 줄었다.

5대 은행 엔화 예금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12월 641억엔이 감소한 이후 처음

이다. 5대 은행 엔화 예금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5978억엔까지 줄었다가 엔화 가치 하락이 본격화되자 같은 해 9월에는 1조엔을 돌파했다. 엔화가 계속 하락하자 예외예금 잔액은 올해도 계속 늘었지만 7월 들어 엔화 가치가 워낙 차의 실현에 나선 투자자들이 늘었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 엔화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 규모도 늘었다. 지난달 5대 은행에서 엔화를 원화로 바꾸는 매수 건수는 7만 2289건, 매수액은 약 128억엔으로 나타났다.

송두리 기자

CEO자격부터 점포 폐쇄까지 규제 법안 쏟아져

금융권 “법 통과시 금융시장 혼란 야기”

황운하 의원,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 강화하는 법 발의 박홍배 의원, 영업점 폐쇄 사전 신고 의무화 법안 내외 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 법 등 “이미 당국 지침 따라 점포폐쇄, CEO 자격 까다롭게 적용” “공공성 이유로 세부 사안까지 명시, 경영 자율성 침해 소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은행 영업점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금융사 임원 결격 사유 요건을 추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권에서는 다수의 법안들이 금융당국의 규제와 중복된 부분이 많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사 임원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서울 여의도 국회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금융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제재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제21대 후반기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의 원이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맡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을 지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해 신고 수리를 검토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가 영업점의 이용자 이의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은행의 영업점 폐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만일 신고가 수리되면 은행은 영업점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영업점 이해관계인

다.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들도 줄줄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천

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 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개판매의 정산주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티몬과 위메프는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산주기를 최대 70일까지 늦춰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점포폐쇄나 금융사 CEO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기존과 중복된 부분이 많아 법안 통과시 금융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기업인 금융사에 공공성을 이유로 세부 사안까지 법안으로 명시하는 것은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 가운데 범죄 경력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의 문”이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유독 금융사 CEO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는 오너 기업이 아니고, 규제 산업이라는 이유로 각 회사의 사정은 후순위로 쳐둔 채 유독 공공성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부 사안에 대해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l06@ekn.kr

증권사 닷 올린 임종룡 회장, 동양·ABL생명에 얼마 쓸까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가 우리투자증권을 공식 출범시키고 계열사로 편입함에 따라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검토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은 M&A와 관련해 과도한 지출은 물론 유상증자를 통한 추가 자본조달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우리금융이 올해 말까지 제시한 보통주자본비율이 12.2%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최대 2조원선에서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이 회사는 이미 보통주자본비율 구간에 따라 총주주환원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가격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사 인수 자금여력 1.8조...동양·ABL생명 인수는 얼마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일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그룹이 증권업 진출로 그룹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최근 우리투자증권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우리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은 한국프스증권을 인수하지 않고 우리종합금융과 직접 합병을 통해 증권업에 진출하며 자금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비축한 자금은 현재 실적 중인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하는데 투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의 관심사는 과연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에 얼마를 투입할지다. 우리금융은 보험사 인수에 약 1조 8000억원의 자금여력이 있다고 공언했다. 즉 1조 8000억원은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최적의 금액대인 셈이다. 우리금융이 제시한 올해 보통주자본비율 목표치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12.2%로, 6월 말 비율과 큰 차이는 없다. 우리금융은 보통주자본비율 11.5~12.5% 구간에서는 총주주환원율을 최대 35%로, 자본비율 12.5~13%에서는

우리투자증권 1일 공식 출범...우리금융, 포트폴리오 다각화 진전 이뤄 한국프스증권 인수 않고 우리종금과 합병...자금 부담 최소화, 여력 생겨 자본비율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동양·ABL 인수...인수 자금 2조원대 쏠려서 “동양생명 접촉과정서 ABL생명까지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격 협상 나설 듯”

총주주환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즉 자본비율 12.2~12.5%가 기준선인 만큼 보험사 인수에 3조원대를 투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만일 패키지 인수에 3조원을 투입하게 되면 우리금융이 제시한 자본비율, 총주주환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에서도 보험사 인수에 비싼 가격을 지불했다는 인식이 강해질 수 있다.

결국 우리금융이 추가적인 증자를 단



동양생명

ABL생명

행하지 않고, 자본비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양생명, ABL생명 패키지 인수에 쓰일 자금은 2조원대로 좁혀진다. 우리금융은 보험사 인수시 연가매수차익이 발생하면 유상증자를 단행하지 않고도 M&A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1일 공식 출범...우리금융, 포트폴리오 다각화 진전 이뤄 한국프스증권 인수 않고 우리종금과 합병...자금 부담 최소화, 여력 생겨 자본비율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동양·ABL 인수...인수 자금 2조원대 쏠려서 “동양생명 접촉과정서 ABL생명까지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격 협상 나설 듯”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매력도 동양생명 높아

나이가 시장에서는 ABL생명보다 동양생명 매력도가 더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ABL생명의 일반계정 개인보험 보험료수입을 보면 동양생명은 3월말 현재 보험료수입 8673억원 가운데 보장성보험이 6654억원으로 저축성보험(2020억원)보다 많다. 반면 ABL생명은 일반계정 개인보험 보험료수입(7777억원)가

운데 보장성보험(2614억원)보다 저축성보험(5162억원)이 압도적이다.

작년부터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는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이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1분기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을 보면 동양생명이 174.7%로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상회한다. ABL생명은 경과조치 적용 후 160.6%,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은 114.3%에 불과하다. 우리금융이 두 회사를 인수하면 ABL생명에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ABL생명은 포트폴리오가 변액보험, 저축보험 중심이고 K-ICS 비율도 여유가 많지 않아 (우리금융 입장에서) 자본 투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금융이 동양생명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ABL생명까지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격 협상에 나서지 않겠나”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증권사의 꽃 → 눈칫밥 먹는 신세...애널리스트 '수난시대'

“애널리스트도 그냥 월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좋게 보는 종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한 증권사 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리서치연구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 중 일부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낸 보고서를 개인투자자들이 보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항의에 시달리면서 나온 말이다. 남부럽지 않은 고액 연봉을 자랑하며 한 때 증권사의 ‘꽃’이라 불리던 리서치센터는 이제 증권사에서 기피부서로 자리 잡았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기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국내 애널리스트수는 1096명이다. 지난 2010년 1575명이었던 것에 비해 5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애널리스트가 아예 없거나 3명 이하인 곳도 있었다. 새로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은 리서치센터를 설립하지 않았다. 다만 투자매매업을 위해 최소 조사

고액 연봉 받았지만 ‘비용 지출 부서’ 꼬리표에 ‘기피부서’ 전략 금융투자협회 애널리스트 1096명...14년새 500명 가까이 줄어들어 기업·투자자 항의에 업무도 마비...“밸류업 활성화 위해 개선 필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낸 보고서를 보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항의에 시달리면서,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기피 부서가 됐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분석 인력을 채용했을 뿐이다. 리서치센터는 수익 창출보다는 비용 지출이 큰 부서이기도 한 만큼 가장 먼저 몸집을 줄이려고 한다. 리서치센터가 ‘비

용 지출 부서’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것은 거래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영향이 크다.

2010년 이전에는 증권사 영업사원들이 애널리스트의 기업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법인과 개인들에게 주식 매도와 매수를 권해왔다. 2010년 이후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직접 정보를 수집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급증. 증권사 위탁수수료의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리서치센터의 위상은 그대로였다. 오히려 애널리스트 수가 줄어드는 해도 있었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들의 눈치에 ‘매도’ 의견을 내기도 힘들다. 분석 대상이 되는 기업 대부분이 증권사 고객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기업금융(IB), 신용공여, 기업공개(IPO) 등의 업무도 맡고 있어 기업들이 고객일 수밖에 없는 구

조다. 주주들의 눈치 또한 볼 수밖에 없다. 실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급등중이던 이차전지 관련주에 대해 ‘매도’ 보고서를 낸 뒤 항의전화까지 회사로 빗발치면서 회사 업무가 마비가 된 사례도 있다. 해당 애널리스트에 대한 인신공격과 협박 등도 이어졌다.

또한 ‘매수’ 의견을 낸 이후 주가가 빠지기라도 하면 해당 애널리스트는 무능한 사람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애널리스트는 투자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직업이지 주가를 맞추는 직업은 아니”라며 “주가를 맞추고 수익을 내는 역할은 투자자의 몫”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기존에 유명했던 애널리스트들은 벤처캐피탈(VC)이나 헤지펀드, 유튜브 개인채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입사원들도 리서치센터는 기피하고 있다. IB나 자산관리(WM) 부서를 선호한다.

한 증권사 직원은 “세미나와 기업답

방, 보고서 작성, 민원 등의 과도한 업무에도 대접받지 못하는 부서에 가고 싶지 않다”며 “리서치보고서를 낸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던 하락하던 투자자들의 민원과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부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리서치센터의 활성화도 중요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며 밸류업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애널리스트육성 또한 밸류업 정책의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널리스트 위상이 떨어지다보니 보고서의 질이 점점 낮아지고, 투자자에게 전달될 정보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처럼 유료 리서치 문화가 정착돼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대명소노, 티웨이항공 지분 인수로 예림당과 경영권 경쟁 본격화

t'way

JKL파트너스로부터 10% 매입...기존 지분까지 25% 확보 최대주주와 5% 격차, 추가 확보 주목...예림당 “대응 검토” 업계 “예림당·대명소노 항공업 두고 쉽사리 포기 어려울 것”

대명소노시즌이 티웨이항공을 두고 예림당에 도전장을 던졌다. 전날 대명소노시즌이 티웨이항공 지분 10%를 매입, 기존 계열사 지분과 합쳐 약 25%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예림당과의 지분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만큼 이른 시일 내 대명소노시즌 측의 지분 추가 매입 가능성이 점쳐진다.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에서는 향후 경영권을 두고 양사 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지난 1일 대명소노시즌은 티웨이항공 지분 10%를 취득하는 주식 양수결정을 공시했다. 양수 대금은 709억원이다.

기존 티웨이항공은 최대주주 티웨이홀딩스 및 특수관계인이 약 30%를 보유하고 소노인터내셔널(14.90%), 더블

유밸류업(11.97%)이 뒤를 이었다. 이 티웨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특수관계인인 예림당이어서 사실상 티웨이항공은 예림당의 지배하에 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대명소노시즌의 주력 계열사이며, 더블유밸류업은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다.

그런데 전날 공시에 의하면 3대 주주 더블유밸류업이 보유한 티웨이항공 지분 10%를 대명소노시즌이 가져와 대명소노시즌 및 소노인터내셔널이 합계 지분 25%를 차지하게 됐다. 최대주주와의 지분 격차가 5%에 불과해 추가 확보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권을 넘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노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역시 지난달 더블유밸류업으로부터 갖 매입한 것이어서, 티웨이항공을 노리는 대명소노시즌의 명확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양수는 소노인터내셔널의 지분 매입 당시 계약한 옵션을 행사한 결과다. 업계에서는 남은 5% 지분을 시장가로 장내 매입하거나, 다른 사모펀드를 우호 세력으로 내세워 매입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1분기 기준 대명소노시즌이 보유한 현금성자산은 1015억원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태다. 더블유밸류업이 가지고 있는 약 2%의 잔여 지분도 있다.

이같은 대명소노시즌의 움직임에 향후 예림당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양 사가 자본력 싸움으로 갈 경우 예림당 측이 크게 불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1분기 기준 예림당이 보유하고 있는 연결 현금성자산은 62억원, 별도 기준으로 봐도 404억원에 불과하다. 대명소노시즌에 맞서려면 추가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림당 측 관계자는 “아직 대외에 입장을 발표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명소노시즌 주주들은 회사의 호텔·리조트 사업과 티웨이항공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눈치다. 이날 대명소노시즌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해 720원에 마감했다. 반면 티웨이항공 주가는 전일 대비 하락했다. 최근 운항 지연 사태, 유가 상승 등 대외적 악재를 마주한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에 의해 제대로 된 위기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LCC 업계에서는 티웨이항공을 둘러싼 예림당과 대명소노시즌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한 LCC 항공사 관계자는 “서준혁 대명소노 회장과 나성훈 예림당 부회장이 모두 항공업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큰 것으로 알려져 어느 쪽이든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코스피 상장사 60% 호실적에도 주가↓

올 2분기 유기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 60%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정보업체 예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 전망치(컨센서스)를 제시한 곳은 106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영업이익이 증권사 컨센서스를 웃돈 기업은 57개사로 53%에 달했고 컨센서스를 하회한 기업은 49개사(46%)였다.

증권사 컨센서스 웃돈 코스피 상장사 57개사 중 34개사, 주가 약세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반도체株,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하락세

호실적을 기록한 57개사 중 34개사(59.6%)는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실적 시즌이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 주가 흐름은 실적과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한화시스템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798억원으로 집계돼 컨센서스(443억원)를 80.2% 웃돌았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4일 만에 주가가 13% 하락했다. 실적 발표 당일인 지난달 30일에는 5.9% 급락했고 다음날에도 7.8%가 추가로 하락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지난달 30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으나 다음날 주가가 9.5% 급락했다.

앞서 방산주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수혜주’로 부상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터라 실적 개선에 맞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종목도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증시에서는 부진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대표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 발표일을 기준으로 지난 2일까지 주가가 각각 6%, 17%, 15% 떨어졌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당일인 지난달 25일 8.8% 하락했다. 지난 2일에

는 10.4% 내리면서 13년 만에 최고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7만 3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하락한 반면 조선주와 금융주는 각각 조선 수퍼사이클과 밸류업 수혜 등의 호재에 힘입어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HD한국조선해양·HD현대미포 등 HD현대 3개사 주가는 실적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HD현대중공업은 19%, HD한국조선해양은 7%, HD현대미포는 11% 오르며 순항했다.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NH투자증권 등 금융주도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면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

김기령 기자

KCC글라스 계열분리 시동...정몽익 회장 지분 확대

KCC그룹의 형제들이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한 여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이 KCC글라스의 지분율은 끌어올리고 KCC 지분율은 낮추면서 계열분리 작업이 시작됐다는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정몽익 회장은 지난 7월 25일 KCC글라스 주식 1만 299주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로 인해 정 회장의 KCC글라스 지분율은 26.89%에서 26.95%로 소폭 상승했다.

정몽익 회장은 2021년 6월 이후 회사 지분 관련 공시가 없다. 지난 7월 3일부터 관련 공시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7월 16일까지 총 7만 3746주를 매입했고, 이어 7월 24일까지 5만 7964주를 추가로 매입했다. 7월 중 정몽익 회장이 KCC글라스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지출한 총 자금 규모는 약

정 회장, 3년만에 지분 확대 나서 금융투자업계 “독자 경영 기반 충분”

58억원이다.

정몽익 회장은 KCC글라스의 지분을 늘리면서 KCC의 지분은 낮추는 중이다. 정몽익 회장은 지난 7월 15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KCC 주식을 총 131억원 규모로 장내 매도해 보유 주식을 41만 3434주에서 37만 3860주로 줄였다.

이같은 정몽익 회장의 지분 매입과 매각은 KCC그룹에서 KCC글라스를 계열분리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KCC그룹은 현재 정몽익 회장이 KCC, 정몽익 회장이 KCC글라스, 정몽익 회장이 KCC건설을 각각 이끌고 있다. 형제사이인 이들은 수년 전부터 각자의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

기 위해 계열분리를 추진 중이다. KCC글라스의 성공적인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형제들 간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정몽익 회장은 KCC글라스의 지분 8.56% (136만 6640주)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비중을 상호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몽익 회장과 정몽익 회장 간의 지분 스왑(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몽익 회장이 보유한 KCC 지분과 정몽익 회장이 보유한 KCC글라스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가 기준으로 정몽익 회장의 KCC글라스 지분 가치는 약 581억원, 정몽익 회장의 KCC 지분 가치는 약 1233억원으로 추산된다.

KCC그룹의 계열분리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과 지분 정리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정몽익 회장은 2022년 11월에도 KCC 지분 2.58% (23만 주)를 매각하여 KCC글라스 지분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한편, KCC글라스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첫 해외 생산기지를 설립 중이며, 이를 통해 동남아 시장 공략과 오세아니아, 중동으로의 시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ESG 경영에도 나서면서 2023년 에코비즈 ESG 평가에서 Gold 메달을 획득했으며,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 A 등급,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CC글라스는 실적 개선과 함께 독립적인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증명하는 중”이라며 “계열분리를 통해 독자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할 동기와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KB證, 글렌코어·서튼지티에스와 가나 탄소 감축 MOU

KB증권은 글렌코어·서튼지티에스와 함께 아프리카 가나의 탄소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 숲 생산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글렌코어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종합 천연자원 회사 중 하나다. 35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화를 돕는 상품 개발·제작·유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서튼지티에스는 글로벌 탄소 감축 프로젝트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한국의 에코넥스스카브크레딧과 케이씨티에스가 공동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KB증권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글렌코어와 함께 아프리카 가나의 탄소 감축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인수할 예정이다.

서튼지티에스는 프로젝트의 개발자로 사업기회 및 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KB증권은 글렌코어, 서튼지티에스와 함께 아프리카 가나 지역의 탄소 감축을 위한 협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업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플라스틱 편의성 놓칠 순 없어...생분해가 대안 역할”

ENERGY INDEX (1일)	
원유 (달러/배럴)	
브렌트	-1.32 79.52
두바이	+1.16 80.69
광물	
금 (달러/온스)	-1.34 2446.26
은 (센트/온스)	-0.46 28.48
동 (센트/파운드)	-9.40 408.25
납 (달러/톤)	-27.04 2021.41
아연 (달러/톤)	+32.46 2648.05

SAMSUNG 삼성선물 거래문의: 02-3707-3699

INTERVIEW 조성원 동성케미컬 부사장

“생분해 잘 안된다” 비판...문으면 썩는다 잘못된 메시지 비롯된 오해 유럽 연구결과 100% 생분해 확인...다만 최대 10년 분해기간 길어져 美·유럽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퇴비화...식물계, 석유보다 탄소배출 적어

현대문명을 대표하는 물질인 플라스틱은 약마의 재능을 갖고 있다. 반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특성은 개발 초기에는 혁신으로 평가됐으나, 오늘날에는 환경과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전 세계가 더 이상 플라스틱의 오염을 두고 볼 수 없어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관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최종회의를 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여러 논쟁거리가 있는 가운데 생분해 플라스틱도 하나이다. 썩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 플라스틱이 개발됐지만, 환경단체들은 완전히 썩지 않을 뿐더러 쉽게 쓰고 버리는 습관을 유지시킬 수 있다며 사용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 때문에 정부 인증도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 연구에서는 100% 생분해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이다. 식물성 생분해 원료인 PLA (Polylactic Acid)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선두업체인 동성케미컬의 조성원 부사장으로 부터 최근 이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들어봤다.

조 부사장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미세물질을 남긴다는 의혹은 상업화 초기에 대중들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생긴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업화 초기에 생분해 플라스틱을 땅에 문으면 바로 분해가 된다는 식으로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됐다. 미세물질을 남긴다는 의혹은 생분해 과정의 초기 단계인 생분고 단계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라며 “생분해 과정에서 미세물질이 잠시 존재할 수 있으나 이후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돼 자연으로 흡수된다. 이 과정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극적으로 줄이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생분해 플라스틱이 완전 분해된다는 유럽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프랑스 남브르타뉴대학의 스테판 브뤼조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옥수수나 사탕수수 원료를 만드는 PLA (Poly Lactic Acid)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퇴비화 시설이 아닌 자연환경에서도 빠르면 1년, 심서 4도(°C) 및 습도 100%의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도 10년이면 완전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덜란드 생분해 플라스틱협회인 홀란드 바이오플라스틱스가 독일 하



서울 중구 동성케미컬 본사 사무실에서 조성원 부사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드라 마린 사이언스 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된 연구에서도 PLA 성분은 물에 완전히 분해돼 미세물질을 생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부사장은 플라스틱을 쉽게 쓰고 버리는 습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이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분야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현대사회는 플라스틱의 편의성을 너무 잘 알고 있다. 한 순간에 사람들이 이 편의성을 포기하고 원시시대로 돌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최대한 그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오염 부작용을 줄여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의 또 하나 관건은 폐기 방법이다. 일반 플라스틱과 섞여 분리수거되면 재활용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고, 썩기 때문에 재활용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곧 쓰레기 매립

이 중단돼 매립도 안된다. 조 부사장은 “최근 방문했던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호기성 발효를 통해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일반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도록 전용 수거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수거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는 방법이 울산시와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중단돼 매립도 안된다.

조 부사장은 “최근 방문했던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호기성 발효를 통해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일반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도록 전용 수거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수거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는 방법이 울산시와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부사장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의 우수성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과학적 접근에 기반한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협약 이행과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식물계 생분해 플라스틱은 석유계 생분해 플라스틱에 비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탄소 배출량이 적다. 특히 환경부가 실증특례로 진행 중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PLA 생분해 플라스틱을 포함해 처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생분해 플라스틱의 처리 인프라에 대해 실증하고 구축한다면, 국가 핵심 산업인 플라스틱 산업의 순환경제 실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호 기자 chybh@ekn.kr

폭염 경보 시 15분 휴식 필수 산림청, 작업자 건강 종합대책

산림청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사업장 폭염 대비 운영절차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2일 임상성 산림청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현장에 관리하는 기관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폭염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운영절차 초기 증상 대한 응급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르면,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메시지 10~15분의 휴식을 취해야 하며, 특히 14시부터 17시 사이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고온 환경에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의 운영절차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열사병의 경우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상승해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어 즉각적인 처치는 조절이 필요하다.

산림청은 비만, 당뇨, 고혈압, 곁경자 등 운영절차에 취약한 작업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야외 작업의 경우, 작업 강도를 조절해 탈진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자주 탈진 상태에 이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수원, 한울 3호기 원전 ‘4880일 무정지 운전’ 신기록

세계 최고 ‘안전운영 능력’ 보유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의 한울3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국내 원전 최초로 무려 16년(10주기) 연속 무정지 운전을 달성했다.

1998년 8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한울3호기는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으로 건설된 최초의 원전이다. 한울3호기는 2008년 7월 25일부터 2024년 7월 27

일까지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제외하고 4880일 동안 무정지 연속운전을 기록하며, 국내 원전 가운데 최장 기간 무정지 연속운전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울3호기가 4880일 동안 생산한 전력량은 115GWh로, 대구광역시 7년간 전력 사용량(약 114GWh)을 넘어선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인 2기 건설 비용과 맞먹는 약 12조 8000억원, 온실가스는 약 4170만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울 3호기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국가 전력산업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울3호기는 그동안 증기발생기, 주 변압기 등 대규모 설비개선과 다빈도 고장설비를 적기에 교체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운영 능력을 높여왔다. 선형 호기의 우수 사례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고, 꾸준한 인재양성 노력을 기울여 왔



황주호 한수원 사장(왼쪽 첫번째)이 한울3호기 현장에서 직원들과 최장기 무정지 운전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다. 현재 한수원은 총 25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다.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

전 이후 총 473회의 운전주기가 중 231회의 무정지운전을 달성했다. 호기당 고장 정지율은 지난해 기준 약 0.08건으로 해외원전(미국 호기당 0.3건)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주기 무정지 운전은 계획예방정비 완료 후 계통연결 시점부터 다음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계통분리 시까지 발전소가 정지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운전·정비·운영관리 능력 등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기술 능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is@ekn.kr

LX인터, 2분기 매출 18% 증가 해상운임·물동량 증가 힘입어

LX인터내셔널이 2분기 자원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임 증가, 물동량 증가 등에 힘입어 매출이 크게 늘었다.

LX인터내셔널은 2일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4조 736억원, 영업이익 129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4%, 0.3% 증가했다.

회사 측은 “석탄, 금속 등 자원 시장의 하향안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산원가 절감 및 트레이딩 수익 확대 노력과 해상운임 상승 및 물동량 증가 영향으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자원 시장 변동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이익 체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X인터내셔널은 석탄, 팜, 트레이딩 등 기존 사업에서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자원 포트폴리오 다각화, 지역 다변화 등 신규 수익원 육성을 가속화하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호 기자

특별기고

박용진

KIS자산평가 ESG사업본부장



지속가능한 지하수와 지하수열 활용방안 찾아야

이 물 이용에 대한 주민·지역·국가 간 분쟁은 역사적으로 유구하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미래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발생하고 있어 치수와 수자원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국내에서 2000년대 이후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댐이나 취·정수장을 건설해서 물을 얻는 것보다 지하수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AI(인공지능)와 데이터센터의 확대에 따라 서버 냉각용 물 공급 역시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입지는 전기와 물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 영향과 더불어 AI 및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에 따라 우리는 과거보다 물, 특별히 지하수를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도한 지하수의 개발은 수자원 고갈 문제와 더불어 지반침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인류가 지하수를 무분별하

게 이용해 지구 자전축이 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하수의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6월에 발표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보면 유역 기반의 지하수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하수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형 건물이나 지하철 등 지하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유출지하수는 하천에 방류되거나 청소용수 등에 사용되었는데,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하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첫번째 방법은 고부가가치 산업체에 지하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은 2020년에 일간 107만톤의 물을 사용했으며, 2030년 이후에는 물 사용량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들은 물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하수의 확보와 이용 역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땅 속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므로 여름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기온보다 따뜻하다. ‘히트펌프’ 기기를 활용하면 냉난방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며, 단일 난방이나 냉방을 하는 경우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3배 이상 좋다.

지하수열은 유출지하수에서 얻을 수도 있고, 지하수에 열교환 기기를 설치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지하수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에너지 절감에 따른 탄소배출권도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는 지하수가 동일한 양만큼 생성하려면 수백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지하수는 현재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자손에게도 물려줘야 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지하수를 보전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하수열 활용 기술과 사업에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국내규제 문제는 중복과 ‘뒷북’... 지키기 쉽게해 철저히 집행해야”

▲경 조대석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

최근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발하며 금융권의 자금난 우려를 넘어 소상공인 줄도산에 대한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대중으로부터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고, 이를 선제적으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금융당국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정부가 규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논쟁이 다시금 불붙는 모양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은 우리나라 규제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자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문제가 터지면 규제를 만들어 틀어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규제가 중첩돼있거나 가짓수가 많아 감독 여력이 부족하고, 어떤 규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관리되고 있어 수정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규제를 일률적으로 검토할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

통상 ‘규제’는 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양 회장은 규제가 필요한 곳은 정확하고 실효성 있도록 수정해 정확한 집행이 필요하며, 규제를 풀어야 하는 영역은 시장참여자가 적절한 리스크를 감당하도록 하는 올바른 역할담당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양준석 규제학회장을 만나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전 산업군 내 규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국가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금융권에서의 규제 방향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심도있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양 회장과 의 일문일답.

—먼저 한국규제학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소개해달라.

▲장기적인 업적을 본다면 규제개혁위원회(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를 세우는 데 학회 회원이 많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규제개혁 역사는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 시작됐는데, 학회에 계신 분들이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에 상당히 참여하고 설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같이 일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메커니즘 내지는 절차를 정하는 일, 산업규제에 대한 논의 정부와 같이 수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보통 학회가 ‘경제학회’, ‘행정학회’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우리 학회는 융합적이다. 주로 경제학자와 행정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 중엔 경영학, 법학 전문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 표층기술규제도 하기에 기술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 중인 규제 현황과 우리나라 규제 특징에 대한 진단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고 보고 지적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중복규제고, 두 번째는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이다.

먼저 중복규제가 큰 문제다. 이는 덩어리규제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부처가 비슷한 규제에 얽혀있는 것이다. 환경, 경영구조, 지배구조, 산업안전분야에서 특히 심하다. 인허가기준, 시설기준, 감사, 지도, 점검,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 부처에 동시에 맞춰야 한다. 이 경우 모두가 기준을 제시하면 차라리 다행인 편에 속한다. 문제는 각 부처가 다른 기준을 내세우는 경우다. 달리 제시하는 모든 기준에 다 맞춰야 하기에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특히 환경규제의 경우 규제의 18.8%가 3개 이상 부처가 관여 중이다. 31.3%는 세계 법령 이상이 관여하고 있다. 규제를 없애려고 한 개의 법을 개정해도 나머지 법이 남아있으면 법이나 규제를 개선한 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 규제개선이 상당히 힘든 편이다. 부처마다 다른 기준에 맞춰 다 따르도록 해야 하고, 심지어 규제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엔 어느 쪽을 지키느냐의 문제마저 발생한다.

둘째로 포지티브시스템이다. 보통 법

에 대해 떠올려보면 이는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이다. 안되는 건 금지하고, 제한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게 법의 체제다. 그러나 우리나라 규제는 포지티브시스템이다. 가끔 새로운 물건이나 기술에 대해 법적 기반이 없어서 판매하지 못한다는 기사나 소식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곧, 이제까지 없던 것을 판매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니 팔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새상품 개발이나 서비스개발을 막는 요소가 된다. 새상품이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인데 법이나 규제로 마련하기 전까지 판매할 수 없는 구조다.

—전반적인 규제의 틀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지.

▲가장 먼저는 필요 없는 규제는 없애는 동시에 필요한 규제는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키는 입장에서 최대한 준수하기 쉽게 해줘야 한다. 규제는 어려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집행해야 할 건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지키기엔 너무 많은 규제들이 있는 구조고, 집행도 잘 되지 않으며, 문제가 터지면 비난하는 행태가 반복된다. 한마디로 필요 없는 건 없애고 필요한 건 지키기 쉽게한 뒤, 집행은 철저히 하자는 것이다.

—변화를 위해 가장 크게 가로막는 요소는

▲규제 변화에 있어 가로막는 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의외로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다. 공무원들이 잘 관리하겠다는 과잉 충성을 하는 경우 혹은 관리자로서 권한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늘리는 경우가 있다. 규제를 많이 만든다거나 엄격하게 해석한다거나 하는 경우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규정된 뒤 관심이나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둘째로는 문제가 터진 뒤 빠른 해결책을 만들려다 보니 규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게 되는 점이다. 통상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에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과거에 만들어 둔 비슷한 규제가 있는데 새로 만들어 중복규제가 되거나 집행 여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일례로 세월호 사건도 불법개조로 인해 생긴 문제였는데, 이는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집행이나 감독이 되지 못해 발생한 문제였다.

—규제를 만드는 쪽에서도 중요한 점이나 필요한 게 있다면?

▲근본적으로 규제는 법이다. 국회와 정부에서 법을 입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입법하는 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받게 돼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거기서 걸러지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법은 검토 장치가 없다. 기업과 학회에서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입법에 대한 검토 절차를 세우는 것이다. 법으로 통과돼도 행정령을 만들고 해석하는 건 공무원이기에 그 과정에서 또 역시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도입단계부터 타당성을 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양준석 회장은 우리나라 규제 전반에 대해, 필요 없는 규제는 없애는 동시에 필요한 규제는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여러 부처 중첩된 규제 기업에 큰 부담... 기준 다르거나 상반된 경우도 포지티브식 규제, 새 상품 개발 등 혁신 막아... 네거티브식 전환 필요 필요 없는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건 지키기 쉽게 만들어 집행은 철저히 규제 전반 체계적 검토 시스템 부재... 국회의원 입법도 검토장치 필요 샌드박스, 오히려 규제개혁 방해... 금융권 규제, ‘리스크’ 감수해야 혁신 ”

무엇인가. 규제개혁 유연성이 부족해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게 있나.

▲규제개혁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다. 대부분 국회에서 막히는데 국회에서 여력이 안돼 통과를 못시키는 경우가 많고, 30% 정도는 그냥 국회로 가지 않고 행정부 내에서 해결하게 해석한다거나 하는 경우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규정된 뒤 관심이나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한 가지 또 살펴봐야 할 건 법이든 규제든 시간에 따라 과거엔 좋은 규제였으나 현재는 나쁜 규제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과거엔 소비자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게 맞았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쇼핑은 소비자들의 상품평제도가 있어 예전처럼 엄격한 소비자규제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또 거연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병원은 반드시 의사만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의사수가 당시보다 늘어난 탓에 병원을 세우고 싶거나 의료계에 투자하고 싶어도 외국 투자자들이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문제는 국가간 통상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국내 산업 전반을 살펴보면 현재 적용 중인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보통은 신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전기가 이런 쪽에 규제가 관심이 많다. 매년 정부에서 신산업 개발 프로그램을 내는 데 규제개혁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다. 미래먹거리는 법적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게 많으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도 곧바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고, 앞서 얘기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자유롭게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시급하다고 보는 쪽은 10년, 15년 후 활성화될 미래 먹거리보다 당장 우리가 먹고사는 전통산업(철강, 자동차 내연엔진, 석유화학 등)에 대한 규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 정부는 현재 불편한 점을 가지고 오면 해결해 주겠다는 신문과 방식을 이용하는데, 한마디로 하나씩 하다 보니 나타나는 변화가 적은 듯하다. 우리나라는 기존 규제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고 정권마다 방식도 다르다.

—산업 전반에서 시선을 금융권으로 옮겨 얘기 나누겠다. 금융권에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어떻게 평가하나.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은 지켜야 할 규제가 많은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혁할 수 없기에 일단은 면제해 준다는 점이다. 규제장벽이 심해도 새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준 것이다. 다만 시행 5년 차인 현재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규정상 2년 동안 2만 회용해 최고 4년간 쓸 수 있는데, 5년차가 시작되면서 또 다시 규제 벽에 서게 된 기업이 많다는 게 모든 샌드박스 문제점이다. 원래 취지는 4년을 규제 없이 일단 시행을 허가해 주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존 규제를 바꿔주겠다는 건데, 실상은 규제가 안 바뀐다. 그래서 대다수 처음 신청한 내용에서 조금 바꿔 신청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마저도 어렵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4년이 지난 후 규제 개혁 등 규제나 후관리가 안 되는 게 시급한 문제다.

를 만들어야 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시급하다고 보는 쪽은 10년, 15년 후 활성화될 미래 먹거리보다 당장 우리가 먹고사는 전통산업(철강, 자동차 내연엔진, 석유화학 등)에 대한 규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 정부는 현재 불편한 점을 가지고 오면 해결해 주겠다는 신문과 방식을 이용하는데, 한마디로 하나씩 하다 보니 나타나는 변화가 적은 듯하다. 우리나라는 기존 규제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고 정권마다 방식도 다르다.

—산업 전반에서 시선을 금융권으로 옮겨 얘기 나누겠다. 금융권에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어떻게 평가하나.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은 지켜야 할 규제가 많은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혁할 수 없기에 일단은 면제해 준다는 점이다. 규제장벽이 심해도 새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준 것이다. 다만 시행 5년 차인 현재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규정상 2년 동안 2만 회용해 최고 4년간 쓸 수 있는데, 5년차가 시작되면서 또 다시 규제 벽에 서게 된 기업이 많다는 게 모든 샌드박스 문제점이다. 원래 취지는 4년을 규제 없이 일단 시행을 허가해 주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존 규제를 바꿔주겠다는 건데, 실상은 규제가 안 바뀐다. 그래서 대다수 처음 신청한 내용에서 조금 바꿔 신청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마저도 어렵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4년이 지난 후 규제 개혁 등 규제나 후관리가 안 되는 게 시급한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샌드박스를 쓰려면 심사를 받아야 해서 또 다른 규제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업의 경우 건전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시

장에 지대한 영향은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소극적인 허가가 나가나 공무원의 엄격한 법해석에 매여 후보평가부터 소극적일 수 있다. 특히 금융분야에선 약간의 문제라도 생길 것 같으면 허가를 주지 않는 편이다. 대기업은 잘 허가해 주고 중소기업은 간단한 평가가 들어가기에 은행 등의 이용도가 높지 않단 문제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이미 안정적인 상품이 많기에 중소기업만큼 혁신성이 필요하지 않아 샌드박스 이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샌드박스가 있으니 전반적 규제 개혁이 더 소홀해질 수 있단 염려도 있다. 당장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샌드박스의 약영향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규제를 풀면 소비자보호가 약해지고, 규제를 조이면 혁신성이 떨어진다. 개념이 상충하는데 금융권에선 어떤 방향성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

▲정부는 너무 혁신적이면 시스템을 위협하거나 소비자보호가 흔들릴 수 있단 걸 가장 크게 걱정한다. 일단 금융권 전성과 관련해서 철저한 검토와 투명성이 기반돼야 한다. 그런 뒤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하면 위험상품임을 충분히 홍보하고 정부가 손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고지를 정확히 하면서 혁신적인 상품을 많이 도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특히 소비자보호에 있어 민감하게 대응하고 염려가 높은 편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핀테크사들도 소비자보호와 정보보호에 묶여 아직 소극적으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듯하다.

결국 누가 리스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보증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상품은 엄격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

다. 잘못되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호하는 상품이 아니라면 위험성 고지와 모든 위험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대신 투명성, 수익률, 실패율은 가감없이 모두 공개하는 게 전제다. 만약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가상화폐 영역에서도 혁신상품이 나올 수 있다.

—금융권에 시가 도입되면서 망분리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급진적인 변화 단계는 아닌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얘기했듯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큰 편이다. 금융정보망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개인정보보유도 전 세계에서도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빅데이터나 AI분야에서 뒤지게 된다는 게 문제다. 데이터를 다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정보보호란 이름으로 막고 있는 환경이다.

영미권이나 유럽은 망분리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하고 싶다면 할 뿐이다. 그들은 우선 금융사에 자유를 맡기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식으로 정보보호 방식을 취한다. 만일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가져가게 되고 판사는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보호를 했는지, 적당한 조치를 미리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면 벌금과 손해배상이 내려진다.

우리나라식 사전통제보다 나은 부분은 이런 점이라고 본다. 정부가 사전통제 하면 규제가 따라 지령이 내려오게 되고 그에 맞춰 모든 기업이 따른다. 이는 심지어 시대에 따라 효용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오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동인증서의 경우 미국은 은행마다 인증서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해커가 하나만 뚫으면 정보가 다 뚫리는데, 미국은 한 은행만 해킹이 가능한 것이다. 외국은 스스로 기술을 진화시켜 해킹을 막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새 기술을 도입한다고 지시를 내려야 하고 전체 대응은 느리게 된다.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따라오는 건 필연적인데, 국내 규제환경 변화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어떤 스탠스와 목적을 취하고 나가야 할까.

▲우리가 새로운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전부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예측을 못한 건 미리 규제를 만들 수 없단 뜻이다. 100% 보호를 원하면 현재 상황만 허용해야 한다. 반면 새로운 상품을 내고 싶다면 어느 정도 위험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검토를 통해 예측이 가능한 문제는 대부분 막을 수 있다.

신상품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선 어떤 면에선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 외국서 소개돼야만 국내에 소개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은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금융사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가 매우 모호하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 기조를 취할 건지, 소비자가 리스크를 지더라도 혁신성을 열어야 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 보인다. 금융은 국가의 혈관인 만큼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지켜야 하는 분야다. 다만 안전을 원하느냐 혁신을 원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위험 감수 정도와 혁신성이 결정될 것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 프로필

△ 한국규제학회 회장 (2022~)
 △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997~2003) △ 에일대 학교(미)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석사, 박사) (1998) △ 코넬대학교(미) 경제학과 졸업 (1988)

또다시 '식물 방통위'... ICT 정책 해결은 언제쯤

이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가 취임 3일 만에 정지되면서 방통위가 다시 개성 휴업 상태에 처했다. 실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워진 전망이다. 이에 방송·통신·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해결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원장 직무는 즉시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심판은 최소 4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단독 체제로 운영된다. 문제는 헌법상 주요 안전 심의가 불가능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 정족수는 5명이며, 이중 최소 2명이 채워져야 안전을 처리할 수 있다. 사실상 '식물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던 정책 수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빅테크 인앱결제 금지법 △망 무임승차 방지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인앱결제 금지법 제정은 8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이전 위원장 취임 3일만에 탄핵 최소 4개월 직무 정지 소요 전망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단통법·망 무임승차 방지법 등 주요 핵심 현안 논의 불가능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 역시 업계 숙원 중 하나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빅테크 납부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연내 추진을 계획했던 단통법 폐지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이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3월 변호사 등 전환지원금을 도입한 바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불법보조금 단속이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잖다.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의 경우 최근 진행된 민관협의회 1차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 하반기 중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갯속에 빠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발성에 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안건을 단독 의결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통합미디어법 제정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해당 법안은 지상파·유료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법과 인터넷TV(IPTV)법, 전기통신사업자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을 통합해 OTT를 제도권으로 포섭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업계에 정책적인 힘을 실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공공중파의 통신 3사 담합 조사 대응 △불법스팸 문자 피해 대책 마련 △OTT 해외 진출 지원 △전환지원금 제도 개선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제

도 개선 등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1인 체제에 따른 업무 공백 속 야당의 현상 검증 및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어 사실상 주요 현안 논의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 관측이 높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탄핵이 무효화된다 해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쟁에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 및 가입자 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 결정권을 전 방통위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두산 "원전사업에 1조원 투입" 주주서한

두산 3사 "사업재편으로 1억원 확보, 원전에 투자" 주주들과 소통 나서 로보틱스·팹팩 통합으로 로봇시너지 창출... "고객 점점 30배 이상↑"

두산에너지리더, 두산팹팩, 두산로보틱스 등 3개사는 4일 대표이사명의로 일제히 주주서한을 내고 주주와 적극 소통에 나섰다.

임시주주총회 참석 대상 주주 명부가 확보되는 오는 5일 서한 발송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각 사 홈페이지에 먼저 서한을 게재했다.

대표들은 서한에서 각 사의 사업 환경과 시장 트렌드, 경쟁사 동향, 미래 전망 등을 놓고 이번 사업 재편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장 전략을 설명했다.

두산에너지리더는 "두산팹팩 분할 등 사업구조 재편이 이뤄지면 생기게 되는 1조원 수준의 투자여력을 원전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상현 대표는 서한에서 "체코 원전에 이어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등의 신규 원전 수주도 기대되면서 향후 5년 간 체코를 포함해 총 10기 내외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 대해서도 "최근 AI를 위한 전력 수요의 유력한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회사가 수립한 5년 간 62기 수주 목표를 대폭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대표는 "현재 계획된 수주는 회사의 원자력 주기적 제작 용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어서 향후 5년 간 연 4기 이상의 대형원전 제작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 20기 규모의 SMR 제작 시설을 확보하는 목표를 수립했다"며 "신기술 확보, 적시의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 현금 확보와 더불어 추가 차입여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산팹팩 분할을 포함한 이번 사업구조 개편을 마치면 두산에너지리더는 △자본금 7000억원 감소 △비영업용 자산 처분을 통한 현금 5000억원 확보 등의 재무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

박 대표는 "추가로 생기는 차입여력과 확보되는 5000억원의 현금 등 1조원 수준의 신규 투자여력이 발생하고, 이는 생산설비 증설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산팹팩 분할 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우려에 대해 "배당수익은 두산팹팩의 영업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고, 두산에너지리더가 필요로 하는 투자재원에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반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1조원을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경우 배당수익보다 훨씬 높은 투자수익률로 더 많은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분할비율과 관련해 "분할 시 두산에너지리더의 주주수는 25% 감소하는 반면 기업가치는 10%만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두산팹팩은 주력 사업영역인 건설, 조경, 농업, 물류 분야의 소형장비 사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무인화/자동화 트렌드

가 이번 사업재편 추진의 배경임을 밝혔다.

스카팹 대표는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에 필수 요소가 될 무인화, 자동화를 위해 당사를 비롯한 선도 업체들은 미래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로보틱스 회사들과의 협력 또는 인수, 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두산팹팩도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과의 기술적 협력을 추진해 오던 중 두산로보틱스와의 통합이 효과적 방안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사 공통 영역인 인공지능 및 무인화, 자동화 요소 기술 확보를 위해 선도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인수합병, 제휴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기술 확보를 가속화하고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전문용 서비스 로봇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대표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산팹팩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이 두산로보틱스 주식으로 교환되는 것과 관련해 "두산로보틱스 이름의 주식으로 교환되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 주식은 주식교환 이전의 두산로보틱스가 아니라 당사와 두산로보틱스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통합법인의 주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 뒤 "양사의 주식교환 완료 이후 신속히 합병해 하나의 회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와 함께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 이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를 전부 소각할 예정"이라며 "당사가 현재까지 실시해 온 배당정책을 통합법인이 승계해 배당 규모를 유지하고 통합법인의 사업적 성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밸류업 방안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는 "두산팹팩과의 통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사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로봇의 최대 시장인 북미, 유럽 시장에서 압도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춘 두산팹팩과 통합하면 이 최대 시장에서 고객에 대한 접점이 현재 대비 약 3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봇 판매의 최대 수요기회가 예상되는 제조 물류 시장에서는 두산팹팩의 지게차와 즉시 공동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류 대표는 예상했다. 류 대표는 "더 나아가 시장 규모 약 10조 이상인 자율주행 로봇과 자율주행 무인 지게차에 공동으로 진출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이어 "양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두산로보틱스는 상장 시점에 제시한 3년 뒤 매출 목표 대비 50%의 추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천우 기자 icw@ekn.kr

한화그룹, '효자노릇' K-방산 업고 하반기 실적 반등 모색

2분기 영업손실 217억 '적자전환' 한화에어로·한화시스템은 호실적 석화·태양광·조선사업 반등 노력

한화그룹이 제조 계열사 실적 반등을 모색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K-방산을 앞세운 계열사가 그룹의 실적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그룹은 위성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미국 합성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을 위해 필리핀을 인수하는 등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행보도 가속화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올 2분기 별도기준 매출 1조5565억원·영업손실 21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전분기 대비 매출은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글로벌·모넨트 부문 실적이 개선됐으나, 건설 부문에서 588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 탓이다.

이에 한화는 △자원순환·수처리 등 그린 인프라 시공능력 향상 △전자뇌관 수출지역 다변화 △고부가가치 고객

향질산 판매 확대 등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서울역북부역세권과 GTX-C 착공도 기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매출 2조7860억원·영업이익 3588억원을 달성했다. 폴란드항 K-9 자주포·천무 다연장로켓 인도가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이끌었다. 하반기에는 K-9과 천무 인도 물량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운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주한 프로젝트만으로도 수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병전투차(IFV) 레드백도 호주에 이어 유럽·남미 수출길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자회사 한화시스템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4차 양산과 폴란드항 K-2 전자 사격통제시스템 등을 앞세워 매출 6873억원·영업이익 798억원을 시현했다.

양사는 하반기도 각각 루마니아항 K-9 패키지, 사우디향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공-II 다기능레이더(M

FR) 등 1조원 이상의 수출계약으로 시작했다. 최근 방위사업청과 KF-21 보라매용 엔진 및 전자주사식 능동위상 배열(AESA) 레이더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한화솔루션의 매출과 영업손실은 각각 2조6793억원·1078억원으로 집계됐다. 석유화학과 태양광 업황 부진의 여파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판매량 증가로 3분기 신재생에너지 부문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케미칼 부문은 주요 제품값 상승이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윤용식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올 1분기 t당 1092달러였던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값이 지난달 1312달러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마진도 같은 기간 386달러에서 580달러로 높아졌다. 폴리염화비닐(PVC) 역시 가격과 마진이 개선됐다.

첨단소재 부문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400kV급 초고압 케이블용 소재(XLPE) 등을 앞세워 국내외 전력망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오션의 매출과 영업손실은 각각

2조5361억원·96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선 업황 강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으나, 컨테이너선 생산 일정이 조정되고 외주비가 늘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하반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매출 비중 확대 및 생산 안정화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한화에서 양수한 플랜트 사업부도 그룹사 물량, 풍력 사업부도 390MW급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 등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

다. 싱가포르 다이나믹스 조선소 인수를 토대로 해양부문 경쟁력을 높이고 거제 사업장 내 수상항 건조능력도 확대한다. 폴란드·캐나다·필리핀향 잠수함 수출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예상만큼의 효과가 나지 못하고 있다"며 "태양광도 공급과잉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당분간 방산 계열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OLED 패널공급 확대에 수익성↑...삼성D, 이번엔 '게이밍 모니터' 정조준

2분기 매출 7조6500억 영업익 1조100억원...전년비 18%·20%↑ 응답속도·색재현력 높은 QD-OLED 모니터로 게이머, 공략 나서

올 1분기 다소 부진한 실적을 냈던 삼성디스플레이가 2분기 곧바로 수익성 개선을 입증했다.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수요에 대응하며 정보기술(IT)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공급을 확대한 결과다.

하반기의 경우 폭풍성장 중인 '게이밍 모니터'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호실적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스마트폰 신작 출시도 삼성디스플레이의

실적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7조6500억원, 영업이익 1조1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20% 증가했다.

애플 아이패드 프로에 OLED 패널을 공급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애플은 지난 5월 자사의 태블릿PC인 새 아이패드 시리즈를 공개했다. OLED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3'에 참가한 게이머들이 삼성디스플레이 QD-OLED 모니터로 '검은사막'을 즐기고 있다.

를 적용한 첫 아이패드여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로써 삼성디스플레이는 1개 분기

만에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회사는 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했다.

시장에선 삼성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 기초를 이어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게이밍 모니터 시장의 고성장세에 발맞춰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유에서다.

게이밍 모니터는 게임에 최적화된 모

니터다. 최근 들어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급증한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빠른 응답속도의 고주사율 모니터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퀀텀닷(QD)-OLED 모니터를 앞세워 게이머 사로잡기에 나섰다. QD-OLED는 블루 OLED에서 나온 빛이 QD 발광층을 통과하며 색을 만들어내는 자발광 기술이다. 빠른 응답 속도, 높은 색재현력 등 대형기에 최적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까지 글로벌 모니터 브랜드 10개사와 협력해 90종 이상의 QD-OLED 모니터를 출시했다. 출시 제품의 상당수는 게이밍 특화 모니터로, 높은 몰입도와 임장감을 원하는 게이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소비자 니즈에 맞춘 QD-OLED 모니터 라인업을 지속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들어 게이밍 모니터 내 OLED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제품 라인업 확대는 수익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부터 고객사인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하로 계절적 성수기가 시작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오는 9월 공개 예정인 4종의 아이패드 16 시리즈에 OLED 패널을 공급한다. 앞서 지난달 출시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Z6 시리즈에도 OLED 패널을 공급 중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마사회 경마 코리아컵, 실속·권위 ‘업그레йд’

내달 8일 과천시 개최, 코로나 후 첫 국제 스폰서십 재개
美 브리더스컵 챌린지 경주 첫 지정...우승마 자동출전
출전국·출전마 수준향상 기대...세계적차 줄이기 발판

국내 유일의 국제경마대회 ‘코리아컵’이 오는 9월 8일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코리아컵 대회를 코로나 완전극복을 넘어 세계 권위의 국제경마대회로 키우기 위해 준비에 한창이다.

4일 마사회에 따르면 이번 제7회 코리아컵(1800m) 대회와 코리아스프린트(1200m) 대회를 위해 미국 경주마 경매 회사 ‘오칼라브리더스세일즈컴퍼니(OBS)’ 및 글로벌 위스키회사 ‘한국브라운포맨’과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했다.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대회에 국제 스폰서십이 재개된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회가 중단되고 2022년 엔데믹으로 대회가 재개된 이후 처음이다.

마사회는 이번 국제 스폰서십 재개로 대회운영비 등 경제적 실리는 물론 국제경마무대에 코리아컵 대회를 알리는 기회도 갖게 됐다.

OBS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본사를 둔 더러브렛 경주마 경매회사로 현재 1200개의 마방과 2개의 경주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2세마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다.

OBS는 마사회에 2만달러(약 2600만원)를 후원하는 외에 이번 코리아컵 및 코리아스프린트 대회 우승마가 OBS 경매를 통해 구매된 경우 각 우승마주에게 별도로 5000달러를 지급한다.

브라운포맨은 잭 다니엘스, 우드포드 리저브, 글렌드로나 등 위스키로 유명한 세계 10대 주류회사로 특히 미국 3대 경마대회 중 하나인 ‘켄터키 더비’의 공식 스폰서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마사회는 지난 4월 세계권위의 국제경마대회인 미국 ‘브리더스컵’을 운영하는 브리더스컵사와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경주를 미국 브리더스컵 챌린지 경주로 지정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협약을 통해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우승마는 자동으로 미국 브리더스



지난해 9월 10일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코리아컵 대회에서 경주마들이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모습.

컵 경주의 출전권을 획득하고 이에 따른 경주마 운송비용 등을 브리더스컵사로 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번 브리더스컵 챌린지 경주 지정은 2016년 코리아컵 창설 이래 처음 이룬 성과로, 코리아컵 대회 위상과 참가 경주마의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022년 재개된 제5회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대회에서는 우리나라 경주마가 두 대회 모두 우승을 석권했다. 당시 우리 경주마의 기량향상 결과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일본 등 경마선진국의 우수한 해외경주마 참가가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반면 지난해 제6회 코리아컵·코리아

스프린트 대회에서는 일본 경주마가 두 대회를 모두 석권했다. 국내 경마업계는 아쉬움 속에서도 오히려 경쟁한 해외 경주마들이 대거 참가해 대회 수준이 높아 졌다는 평가도 내놨다.

올해에는 해외 스폰서십과 브리더스컵 자동출전권까지 확보된 만큼 앞으로 남은 한 달간 해외 우수 경주마들의 참가 신청 결과가 주목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올해는 OBS, 한국브라운포맨 등 다양한 후원사와의 계약으로 한국 국제경마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품격있는 국제경주를 진행하겠다”며 “한달여 남은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휴온스, 일본 표적 삼아 ‘매출 1조’ 정조준

지주사·주력사 대표 송수영 사장, 현지법인 휴온스재팬 대표 겸직
건기식·화장품·신사업 총괄...日사업, 그룹 새 성장동력으로 낙점

종합 헬스케어 기업 휴온스그룹이 일본 진출을 본격화하며 ‘매출 1조 클럽’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휴온스그룹에 따르면 지난 2일 휴온스글로벌과 휴온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송수영 사장을 일본 현지법인 휴온스재팬의 대표로 선임했다.

이로써 송 사장은 그룹 지주사와 주력사 대표는 물론 일본법인의 대표까지 겸직하게 됐다. 일본사업 확대에 대한 휴온스그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휴온스그룹은 지난 2022년 일본 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미용·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이어 두번째 해외법인인 휴온스재팬을 일본 오사카에 설립했다.

그동안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져온 휴온스그룹은 송수영 대표 선임을 계기로 고기능성 화장품, 건기식 등 국내에서 성장세인 제품 판매와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일본전선전화공사(NTT), PwC재팬, 딜로이트컨설팅재팬 등 일본 굴지의 소프트웨어·통신·경영컨설팅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경영인 송수영 대표는 지주사와 주력사 대표를 겸직함으로써 계열사간 시너지를 높이는 데 더해 일본사업을 그룹의 새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휴온스그룹은 내년 매출 1조원 달성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간다는 복안이다.

주력사인 휴온스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3082억원의 매출과 0.7% 감소한 28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성장에 주춧했지만 1분기(-4%)에 비해 2분기(1.8%) 성장세가 호전됐으며 특히 매출



송수영 휴온스재팬 대표

은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을 비롯해 점안제 등 위탁생산(CMO), 연속혈당측정기 ‘텍스콤G7’ 등 의료기기, 건기식 등 뷰티·웰빙 부문이 두루 성장하고 있다.

휴온스 등 1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 휴온스글로벌과 휴온스는 물론 △하일루튼산 필러 등 에스테틱 계열사 휴메디스 △보툴리눔 독신 ‘리스토스’ 계열사 휴온스바이오파마 △의료기기 계열사 휴온스메디칼 △애플 등 포장용기 계열사 휴엔앤씨 등 계열사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역대 분기 최대인 2019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상반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율을 보이며 4000억원대 매출이 예상된다.

지난해 매출 7584억원, 영업이익 1148억원을 기록한 휴온스글로벌은 올해 9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에 이어 내년 첫 매출 1조원 달성도 가시권에 두고 있다.

특히 일본사업 확대를 통해 전체 그룹 매출 중 10% 가량을 차지하는 해외 매출 비중을 높이고 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송수영 대표는 “일본의 문화와 제약, 뷰티 산업의 특수성을 잘 접목해 일본사업 확장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일본 내 휴온스그룹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다양한 신사업도 확대해 휴온스그룹의 글로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백화점, 9일부터 추석선물 사전예약 돌입

프리미엄·실속 세트 최대 50% 할인

백화점업계가 오는 9일부터 추석선물 세트 사전예약 행사에 돌입한다.

백화점들은 고물가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전 예약 선물세트 물량을 확대하고, 프리미엄부터 실속형 상품까지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전 점에서 ‘추석 선물 예약 판매’

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전 예약 행사는 220여 품목을 정상이 대비 최대 50% 할인판매 한다.

상품군별로 축산, 과일, 수산 등 신선식품 70여 종과 건강식품 60여 종, 주류 30여 종, 가공식품 60여 종 등을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에 예약 판매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해 전년 대비 전체 선물세트 물량을 약 20% 늘렸다.

롯데백화점은 행사 기간 축산과 수산

선물 세트를 프리미엄부터 실속 세트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2024년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예약 판매 기간 한우·굴비·청과·건강식품·주류 등 인기 세트 220여 종을 최대 30% 할인해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등갈비 1.1kg, 불고기 0.9kg, 국거리 0.9kg로 구성된 ‘현대특선 한우 구이 족(竹) 세트(47만원)’, 22cm 이상 크기의 굴비로 구성된 ‘영광 불굴비 족(竹) 세트(35만원)’, 제주산 갈치

2.4kg로 구성된 ‘제주 갈치 매(梅) 세트(29만원)’ 등이다.

신세계백화점도 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21일간 최대 60% 혜택을 제공하는 2024년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신세계는 지난해 추석 대비 10% 늘어난 5만여 선물세트를 예약판매 물량으로 선보인다. 예약 판매 품목은 배, 사과, 귤 등 농산 40품목, 한우 등 축산 32품목, 굴비, 갈치 등 수산 29품목, 와인 30품목 등 총 250여 가지이다.

서예은 기자 pr9028@ekn.kr

대상 청정원, ‘천연당’ 알룰로스에 공들인다

저당 트렌드 대응...‘스위베로’ 등 대체당 사업 강화
국내 B2B→B2C 사업 모델 확장·해외시장도 확대

대상청이 주력 신사업으로 꼽고 있는 천연당 ‘알룰로스’의 소비자용 제품을 최근 선보이며 전방위 시장선점에 나서고 있다.

국내 신사업 확대를 위해 제품 대중화에 나선 동시에 해외시장까지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천연당 키우기’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3일 대상에 따르면, 자체 대표 브랜드 ‘청정원’을 통해 일반 소비자용 알룰로스 제품을 선보였다. 요리용·시럽용 2종으로, 용도별로 점도·감미도를 달리 만든 맞춤형 제품인 점이 특징이다.

기존 B2B(기업간 거래) 시장에서 이어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시장까지 알룰로스 판매 보폭을 넓혀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알룰로스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희소 당이다. 앞서 발암물질 논란을 겪은 아스파탐 등 합성 화학물과 달리 무화과·건포도 등에서 추출한 ‘안전한 당’으로 꼽힌다. 특히, 열량이 설탕의 약 10분의 1로 낮은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상 관계자는 “청정원 소비자용 제품 외에도 식초 등 청정원 브랜드 일부 제품에 알룰로스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다양한 제품 재료로 알룰로스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대체당 통합 브랜드 ‘스위베로’를 출시해 B2B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이어 소비자용 B2B 제품을 내놓은 것도 최근 저당·저칼로리 열풍에 대해 감미료 수요가 증가세인 만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7월 전북 군산 전분당 공

장에 3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알룰로스 전용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대상을 제외하면 현재 국내에서 알룰로스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삼양사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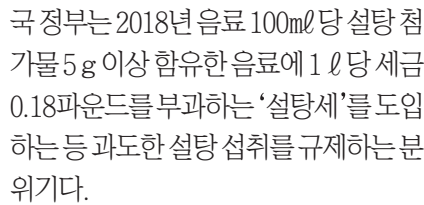
이처럼 대상이 알룰로스 사업에 열을 내는 이유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높은 성장성 때문이다. 해외 시장조사기관 포브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약 10조3290억 원 수준이었던 대체당 글로벌 시장 규모는 오는 2029년 약 17조 7107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강력한 ‘당 저감’ 정책을 펼치는 선진국 시장의 트렌드를 파고들어 틈새시장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2018년 음료 100ml 당 설탕 첨가물 5g 이상 함유한 음료에 1ℓ 당 세금 0.18파운드를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하는 등 과도한 설탕 섭취를 규제하는 분위기다.

대상은 알룰로스 B2B 브랜드 ‘스위베로’를 발판으로 글로벌 대체당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출시 초기 업계도 스위트베로 브랜드 이름으로 알룰로스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달 14~17일 미국 시카고 ‘국제식품기술전시회(IFIT) 2024’에 참가해 스위트베로 홍보에 나서는데 등 현지 인지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대상청 청정원이 판매하는 일반 소비자용 알룰로스 제품 2종

[기획] K-스타트업의 도약

해조류 미생물 이용 동물세포 배양 고단백 육류 개발 ‘씨워드’

해조류로 저렴한 소고기 대체육 생산...맛 80% 유사

일반 소고기보다 포화지방 낮아
생산비도 95% ↓ 2026년 양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환경운동가들은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 마련을 권장하고 있다. 육식은 채식 대비 3~4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으로, 육류·유제품 생산량의 50%를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할 경우 오는 2050년까지 농업·토지 이용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2020년 기준)을 31% 줄일 수 있다는 효과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창업한 배양육 스타트업 씨워드는 환경파괴 영향을 줄이면서 고기를 섭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해조류를 가공한 물질을 이용해 동물세포 배양, 고기를 생산하는 스타트업이다. 배양육 스타트업 기준 국내에서는 1~2번째, 글로벌은 10~20번째 내에 빠르게 창업한 기업이다.

김준호 씨워드 대표는 “배양육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미생물과 균을 발효해 식품을 만드는 맥주나 요거트와 동일하게 동물 근육세포의 양을 불러 음식으로 섭취한다는 개념으로, 식품산업에서 세포 배양은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동물세포 배양 공정은 현재 식품의 약안전치나 미국 FDA 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배양육을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 배양육은 오랜 기간 연구를 거쳐 실제 판매를 시작하는 단계로, 해외에서



김준호 씨워드 대표

는 허가를 받아 소매 판매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요리로 선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단, 현재 배양육을 생산할 때는 부유 배양이 불가한 동물 근육세포가 붙어서 자랄 곳을 제공하기 위해 소의 태아에서 얻는 소태혈청을 이용해야 한다. 반면, 씨워드는 해조류를 가공한 물질을 소태혈청 대신 이용해 바이오 소재를 이용하는 타 기업 대비 배양액 가격을 95% 절감, 배양육 가격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해조류를 이용하는 만큼 배양할 때 식품 범주의 재료만 사용해 심리적 접근성이 높고 비교적 친환경적인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타 기업들의 경우 닭이나 생선 위주로 배양육을 개발하고 있다”며 “씨워드는 소 세포를 이용해 소고기를 만들고 있어 부가가치나 활용 범위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씨워드가 생산한 소고기 배양육은 일



씨워드의 배양육으로 제조한 햄버거

반 소고기와 단백질이 비슷하거나 두 배 높은 데다 포화지방이 낮아 건강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일반 고기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배양육은 일반 고기와 비교했을 때 맛 유사도가 80% 수준으로, 40%대 인 식물성 고기에 비해 맛과 식감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장점이 있다.

김 대표는 “현재 채식에 지향하며 간헐적으로 육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이 세계 인구의 1/4에 달한다”며 “이 중에는 식물성 고기를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아 미국 내 10가구 중 6가구가 대체육을 활용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플렉시테리언의 증가로 현재 18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대체육 시장이 연간 15%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라며 “씨워드는 플렉시테리언 등 지금보다 동물권이나 환경에 이로운 식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고객층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세포를 얻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육식을 부려 잔혹하지 않는 선에서 전체 공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씨워드의 배양육은 개발이 거의 완료된 단계로, 제품 출시를 허가가 완료되는 오는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로 내다보고 있다. 씨워드는 제품 판매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연간 1000톤의 배양육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분쇄육 위주로 제품을 개발했으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6~2027년까지 두겹 구워먹을 수 있는 고기를 생산한다는 목표도 함께 지니고 있다.

씨워드는 국내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해외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 세포 배양식품 생산과 실증 판매를 준비 중으로,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 FDA 인증을 획득한다는 방침이다.

씨워드는 총 75억원의 투자를 받아 시리즈A 펀딩을 완료, 글로벌 데이터조사 기관인 홀론아이큐(HolonIQ)에서 선정한 기후 스타트업 100에 지난 2022~202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초청돼 연설한 경험도 지니고 있다. 특히는 국내 출원·등록 6건, 해외 출원 6건을 보유했다.

김준호 대표는 “식품 대기업들도 배양육 제품 판매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에서 이제는 진짜 배양육이 상용화 단계까지 왔다고 느끼고 있다”며 “배양육이 특별한 소재가 아니라 식품 원료 중 하나로 생각되는 시기가 빠르게 찾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신축빌라 사면 세제혜택
非아파트 공급 늘린다
정부, 광복절 이전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의 다세대, 빌라 밀집 주택가.

정부가오는 광복절 이전에 최근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상승세를 탄 서울의 아파트 매매·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지방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우선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해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주택 공급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에서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을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때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은 누릴 수 없도록 했었다.

송두리 기자

【분양탐방】 인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수도권 집값 상승 타고 완판 도전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모형도.



전용 108㎡ 타입입 유니트 내부 모습.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 열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방문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견본주택에도 이같은 수요자들로 인한 인산인해를 이뤘다. 3000가구가 넘는 이 단지는 인근에 축구장 11배 크기의 공원이 함께 조성되는 숲세권 입지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1단지 1974가구, 2단지 1089가구 총 3053가구 규모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1단지는 △59㎡ 319가구 △84㎡ 839가구 △108㎡ 806가구가 구성된다.

이날 분양 현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기 줄이 늘어선 등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젊은 부부에서 40~50대는 물론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꼼꼼히 단지 배치도나 실물 모형, 인테리어 등을 살펴가며 분양 관계자들에게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당점을 꿈꾸며 청약 상담을 하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견본주택 내 유니트는 전용 59㎡ A, 84㎡ A, 108㎡ A·B 등 4개 타입이 마련돼 있었다. 전용 59㎡ A, 84㎡ A는 각각 침실 3개, 거실과 주방, 욕실 2개 등으로 구성됐다. 4bay 판상형 설계가 각각 적용됐으며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제공한다. 전용 108㎡ A·B 타입은 각각 침실 3개, 거실과 주방, 욕실 2개, 알파룸 등으로 구성

파크시티 1단지 1974가구 분양 3000가구 넘는 대단지 아파트 축구장 11개 규모 대형공원 조성 미팅룸·시네마·뮤직룸 등 공간도

됐다. 전용 108㎡ A는 4bay 판상형 설계가 적용됐으며 전용 108㎡ B는 타워형 구조로 설계됐다.

40대 여성 A씨는 "동네에서 보기 드문 신축 대단지이고 유명 건설사 브랜드라고 해 견본주택을 방문했다"며 "유니트를 보니 관심이 있던 전용 59·84㎡ 타입 외에도 전용 108㎡ A·B 타입도 눈길이 간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규모와 걸맞게 다채로운 커뮤니티와 조경공간이 도입된다.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와 피트니스클럽, 필라테스룸, 실내골프클럽 등 운동시설이 마련되며, 미팅룸,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스트리밍 시네마, 뮤직룸 등의 공간도 조성된다. 어린이를 위한 돌봄 센터와 키즈카페,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도 조성될 예정이다. 주차대수는 1단지 2786대(세대당 1.41대), 2단지 1508대(세대당 1.38대)로 넉넉한 편이다.

방문객들은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녹지를 이 단지의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단지 인근에 효성서초, 명현초, 효성초, 복인천여중, 효성중, 효성고 등이 있고 효성도서관과 학원이 밀집해 있다. '파크시티'라는 단지명에서 알 수 있듯 단지 주변을 둘러싸

는 대형공원이 축구장 11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꼼꼼히 유니트를 둘러보던 60대 여성 B씨는 "대형공원도 있고 학군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아들 부부에게 청약 권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교통환경을 보면 인근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도보 25분 이상 거리로 다소 멀지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노선이 인근을 지나가게 돼 있어 나쁘지 않다. D노선은 서울 강남권역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여기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도 기대해볼 만하다. 흥대입구역부터 경기고양시를 거쳐 부천, 인천 계양·청라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다. 단지 앞에 효성역이 예정돼 있어 노선 개통에 따라 서울 내 이동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분양가가 인근 신축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편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 전용면적 84㎡가 5억8724만~6억7886만원대에 책정돼 있다. 계약구대장 아파트로 평가받는 작전동 '힐스테이트자이계약(2024년 3월 입주)' 전용 84㎡가 지난 5월 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또한 작전동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2021년 10월 입주)'는 같은 평형이 지난달 6억6500만~6억7500만원에 팔렸다.

앞서 지난 5월 공급된 2단지는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계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80% 이상을 소화했다는 전언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분양가 상한제가 부른 '로또 청약' 광풍 7월 3개 단지 31만명 몰려... 경쟁률 50대1 리얼투데이 집계 결과, 1개월 청약자수 44개월 만에 최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및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아 지난달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자 수가 지난 1~6월을 합한 것보다 많아 전국 경쟁률이 50대1에 육박, 44개월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총 31개 단지, 1만320가구 모집에 50만229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청약자 수(43만3409명)보다 더 많은 규모다. 이에 따라 평균 경쟁률은 48.67대 1로 나타났다. 55.96대 1을 기록했던 2020년 11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4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수도권 3개 단지에만 31만명이 청약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신축 아파트보다 가격이 싼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최소 수억원의 차익이 발생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며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다.

지난달 1순위 청약 받은 경기 화성

시 '동탄역 대방엘리움더시그니처',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 3개 단지의 청약 신청자 수만 31만3900명에 달했다.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186가구 모집에 11만6621명(평균 경쟁률 626.99대 1),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453가구 모집에 10만3513명(228.51대 1)이 접수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527.32대 1)이 신청했다.

이단지들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많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일반적으로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시도별로 봐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분포한 경기도와 서울의 청약 평균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3346가구 모집에 32만568명이 신청해 평균 95.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793가구 모집에 14만7682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186.23대 1에 달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영끌족'의 눈물... 임의경매 11년만 최대

7월 등기 신청 건수 총 1만3631건 전담대비 24.1%·전년비 46.1% ↑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법원에 접수된 경매 물건 숫자가 11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3일 기준)이었다. 전담 1만983건(8월3일 기준)에 비해선 무려 46.1%나 급증한 수치다. 2013년 7월 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

을 경매에 넘기는 행위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이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로 은행·제2금융권 등이 채권자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임의경매 건수 급증을 '영끌족'의 눈물로 해석하고 있다. 즉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급등시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지만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영끌족'들로 인해 임의경매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임의경매 물건 종류 별로 보면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이 대폭 늘었다. 지난 달 전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484건으로 전년 동기(3547건) 대비 54.6%나 증가했다.

이현주 기자

퍼터는 레이콕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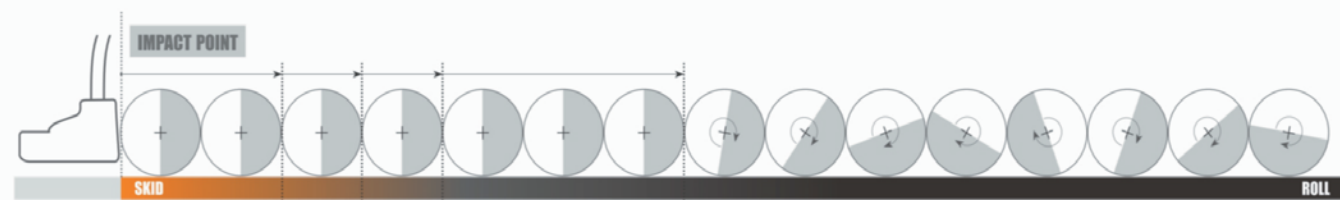
숏퍼팅은 더 좋습니다

RAYCOOK



▽ S사·B사·T사 퍼터와 레이콕퍼터의 공의 스킵(미끌림) 거리 비교

※ 테스트 | 스포츠산업기술센터 (KIGOS)



中, 구리 수요 다시 늘었다...구리가격 회복 청신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20% 가량 폭락했던 구리 가격이 마침내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구리값이 단기간에 폭락하자 그동안 관망세를 이어왔던 중국 구매자들이 구리 매입에 조금씩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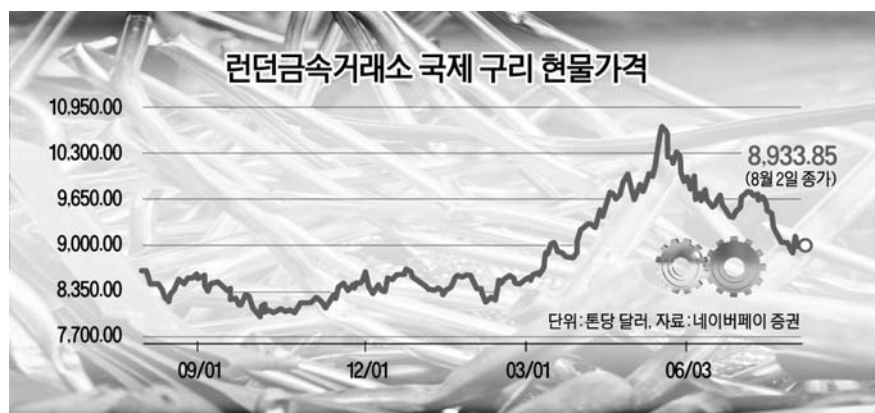
4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월 톤당 1만1000달러였던 구리 가격이 최근 9000달러 밑으로 폭락하자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구매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국제 구리 현물 가격은 증가 기준 지난 5월 20일 톤당 1만 857달러로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30일 8809달러로 순식간에 20% 가까이 폭락했다.

지난 2일에는 톤당 8977달러로 장을 마감하면서 구리 시세가 저점대비 소폭 회복한 상황이다.

이처럼 구리 가격이 약 2개월만에

中 경기둔화 우려에 20% 폭락했지만 매입 늘며 저점 탈출 기대감 일각 “최악 상황 지나” 낙관론...중국 기관 대량 매입도 호재 작용



20% 가량 폭락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가 다시 위축되자 구매자들이 구리 매입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구리는 경기 흐름을 선행해 ‘다터 코퍼’로도 불린다.

CRU그룹의 로버트 에드워즈의 선임 애널리스트는 “구매자들의 매입 중단은

로 수요가 꺾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 경제성장률은 작년 3분기 4.9%, 4분기 5.2%와 올해 1분기 5.3%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오다 2분기에 4.7%로 크게 꺾였다. 이에 ‘5% 안팎’이라는 올해 성장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진

그래픽=김베터 기자 seuk22@ekn.kr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제조업 PMI(구매관리지수)가 49.4로 집계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PMI는 통상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낮으면 경기 수축·위축 국면을 의미한다.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왔다.

이를 의식한 듯 자산운용사들은 지난 5월 중순부터 200억달러가 넘는 구리 강제 매입을 청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리 가격 흐름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국부펀드 중국개발투자집단(SDIC)의 사오징수석비철금속애널리스트는 “현재 가격은 국내 펀더멘털을 잘 반영하고 있다”며 “재고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수요는 천천히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에드워드 역시 “올해 수요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며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는 물론 전통 소비재 등 부동산을 제외한

분야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수입 구리의 수요를 반영하는 ‘양산 구리 프리미엄’ 또한 지난 5월·6월 사상 처음으로 0 밑으로 떨어졌지만 최근들어 3개월래 최고치까지 반등했다.

아울러 글로벌 광산 기업 리오 틴토의 아홉 스타우스홀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중국 수요가 견고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기관들의 대량 매입 기대감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도 구리 가격 상승의 호재로 꼽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전력망공사는 전력망 추가 구축을 위해 올해 지출을 6000억위안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블룸버그는 이런 내용을 종합했을 때 구리뿐만 아니라 철광석, 알루미늄, 리튬, 니켈 등의 가격이 앞으로 수직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란, 이스라엘 보복 공격 임박? 미군 총괄 지휘 사령관 중동행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중동지역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관이 중동으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약시우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 중부사령부를 지휘하는 마이클 에릭 쿠릴라 대장이 중동에 도착했다고 미국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쿠릴라 사령관의 이 지역 방문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헤즈볼라 간 긴장이 고조되기 전에 계획된 일정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을 살해한 뒤 역대 긴장이 현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진 방문으로 의미가 달라졌다.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은 이란이 영토 내 귀빈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르면 5일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공격의 파괴력을 키울 방안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등 비롯한 역대 대리세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최고위급 간부를 공습으로 살해하자 따로 보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쿠릴라 사령관은 이번 방문을 지난 4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방어한 것과 같은 공조를 끌어내는 데 활용할 것으로 미 당국자는 예상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4월 1일 시리아 주재 영사관이 이스라엘에 폭격당하자 같은 달 13~14일 이스라엘 본토에 대규모 드론·미사일 수백발을 날렸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주변 아랍권 우방들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를 거의 피해 없이 막아냈다.

쿠릴라 사령관은 걸프 국가들과 요르단, 이스라엘 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르단 방문이 중요할 수 있다. 요르단은 지난 4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가 자국 영토를 이용해 이란의 드론을 요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가자지구 전쟁의 격화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진 까닭에 아랍권 우방의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란의 보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폭스” vs “ABC”...트럼프-해리스 TV토론 ‘기싸움’

트럼프 “9월 4일 폭스뉴스와 토론”
해리스 “9월 10일 ABC주최 토론”
양측 입장차 TV토론 무산 가능성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프)가 동의한 대로 9월 10일 거기(ABC주최 토론)에 갈 것이다. 그곳에서 그를 보길 희망한다”며 바이든-트럼프 간 합의의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해리스 캠프의 마이클 타일러 공보국장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는 겁을 먹고 자신이 동의한 토론에서 발을 빼려 하는 동시에 자신을 구해 달라며 폭스뉴스에 달려가고 있다”며 “그(트럼프)는 장난을 그만둬야 하며, 9월 10일에 하기로 이미 약속한 토론(ABC주최)에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9월 10일 시청자들 앞에 설 것이며, 그 이후 양 진영이 합의하는 추가 TV토론에 기꺼이 나설 용의가 있다고 타일러 국장은 밝혔다.

다만 ABC는 양자간의 토론이 무산될 경우 해리스 부통령만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 등으로 형식을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TV토론 관련 제안을 수용

했었던 지난 6월 CNN 토론과 달리 행사장이 청중들로 가득 찬 상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주판사 및 일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9월 4일 TV토론’은 폭스뉴스가 주관하는 타운홀 미팅(후보가 유권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는 행사)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떻게 ‘언

제, 어느 곳이든’이 ‘특정 시간, 특정한 안전 장소’로 바뀔 수 있는지 재미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 관련 발표를 일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기 전, ‘바이든 대통령과 언제, 어디서든 TV토론을 하겠다’는 기조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교체된 뒤 일정과 주판사 등을 바꾸려 하는 데 대한 조롱이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나는 그(트럼

프)가 동의한 대로 9월 10일 거기(ABC주최 토론)에 갈 것이다. 그곳에서 그를 보길 희망한다”며 바이든-트럼프 간 합의의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령에 인지력 저하 논란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해리스 부통령 쪽이 상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보다 19살 어린 59세인 데다, 공개 장소에서의 논쟁을 ‘업’으로 삼았던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바이든이었기에 양보할 수 있었던 토론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속내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도 ‘친트럼프 매체’로 통하는 폭스뉴스가 토론을 진행할 경우 ‘기술적인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역시 쉽게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이처럼 양측이 TV토론을 놓고 좁히기 어려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대선 전 트럼프-해리스 간 TV토론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진단했다.

박성준 기자

세계의 지성 니체와 우리 시대의 지성 김욱의 마지막 대화

“니체라는 산맥을 넘어서지 않고는 현대를 만날 수 없다.”
- 푸코 미셸 -

너의 생각을 선택하라 그것이 될 것이다

“나답게 살자!”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기존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깨부순 망치와 같은 철학자
니체의 난해한 아포리즘을 자신의 삶에 녹여낸 김욱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 김욱 편역 | 17,500원

니체가 들려주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역경을 이겨내는 법’

김장현 “인니 전력산업 발전 초석 이룰 것”

〈한전KDN 사장〉

한전KDN 나주 본사 방문한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관계자에 에너지 ICT 신기술 소개 GIS 시스템 현장 적용 견학 UFMS기술·ADMS 운영 살펴 PLN 방문단 데텐 “韓 UFMS, 발전된 전력 분야 협력 기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 방문단이 한전KDN 홍보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인도네시아 에너지ICT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KDN은 최근 나주 본사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 관계자들에게 에너지ICT 신기술을 소개하고, 한전KDN의 솔루션이 운영되고 있는 현장 방문과 시연을 통해 양 기관의 사업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한전KDN의 꾸준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PLN의 이번 방문은 전력ICT 운영 기술의 개선을 통해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한전KDN의 솔루션 시연 및 실제 현장 견학에 대한 PLN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한전 KDN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얀푸 및 땅가무스 지역에 발전소 원격모니터링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으로 2022년에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로부터 전력ICT 사업 참여 및 제안을 요청받았다.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중부발전 짜레본2화력발전소 모니터링 사업을 수주했다. 앞으로의 인도네시아와의 전력 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나주한전KDN 본사 방문단은 △한전KDN 제주사업처 GIS 시스템 현장 적용 현황 견학 △UFMS(도통) 기술 시연 △ADMS 운영 배전센터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나주한전KDN 본사 방문을 하게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PLN 방문단은 한전KDN 본사 1층에 있는 홍보관 견학을 통해 한전KDN의 역사와 한국의 전력계통에 대해 소개 받고 김장현 한전KDN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의 면담, 한전KDN 교육관에서 실제 솔루션 적용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UFMS의 실제 현장 시연을 위해 본사 정문에서 배전관로 및 맨홀 등 지하 매설물 현황 설명을 들은 후에는 AR

DC망 현황 및 운영시스템 시연 △한전KDN 제주사업처 GIS 시스템 현장 적용 현황 견학 △UFMS(도통) 기술 시연 △ADMS 운영 배전센터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나주한전KDN 본사 방문을 하게 된 것이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력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에 감사하다”며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향후 추진하게 될 많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로 인도네시아 전력산업 발전의 초석을 만드는 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전KDN 관계자와 PLN 방문단은 28일 제주시 구좌읍의 스마트 그리드 홍보관(CFI 에너지미래관) 견학을 시작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서제주 HV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인쇄도면과 AR을 통한 비교 체험을 생생히 느끼며 모바일기기와의 연동도 함께 체험했다.

인도네시아 PLN 방문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다음 날 한전이 운영하는 무인화 변전소 방문을 통해 디지털 변전소 운영 현황과 변전소 무인화 설비 견학 등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PLN 방문단을 이끄는 데텐(Deden)은 “인도네시아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수반되는 전력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UFMS, 스마트그리드 등 발전된 전력 분야에 많은 협력을 기대하면서 방문 기간에 한전KDN 관계자들이 보여준 성실한 솔루션 소개 및 시연과 체험, 친절한 배려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력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에 감사하다”며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향후 추진하게 될 많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로 인도네시아 전력산업 발전의 초석을 만드는 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성정 기자 jis@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에서 수자원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수자원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완섭 “기후대응담 필요, 소통 강화할 것”

〈환경부 장관〉

수자원전문가 5명 간담회…담주변 지원 방안 등 수자원정책 중점 논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기후대응담 등 수자원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수자원 전문가 5명을 만났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극한 홍수와 가뭄, 미래 물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없이는 가뭄과 같은 물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신규 기후대응담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기후대응담의 필요성 등 수자원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수자원 전문가와 함께 담 주변

지역 지원방안, 지역 우려사항의 해소 방안 등 기후대응담 건설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향후 수자원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 장관은 “우리 앞에 당면한 기후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기후대응담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담 건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구성욱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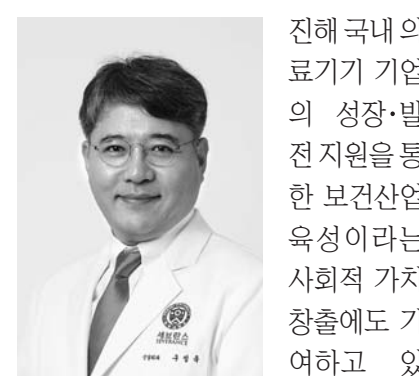
〈연세대 의대 신경외과〉

척추분야 연구 헌신 복지부장관상

구성욱 연세대학교 의대 신경외과 교수(57·사진)가 지난 1일 제15대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취임했다.

구 병원장은 연세대 의대 출신(1992년 졸업)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홍보실장·연구부원장, 강남부학장,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 등을 역임했다. 의대 의료가기산업학과 대학원 주임교수, 의료원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연세의대 융합의학과 및 의료가기산업학과를 신설하고, 실무 중심의 의료가기산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도입해 의료가기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 융합 전문인력 육성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혁신 의료기기 실증사업도 추



진해 국내 의료가기 기업의 성장·발전 지원을 통한 보건산업 육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구 병원장은 척추분야 연구·교육·진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신경손상학회 학술상 △대한척추신경과학회 라미 김영수 학술상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기초연구 학술상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보건복지부장관상 △제8회 의료가기산업대상 등을 수상했다. 박효순 메디컬 전문기자 anytoc@ekn.kr

KT, 디지털인재 취업 지원 잡페어 성료

〈에이블스쿨 5기 교육생〉

KT는 소피텔 캠퍼스 서울에서 에이블스쿨(KT AIV LE School) 5기 교육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잡페어(Job Fair)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KT를 비롯 한 KT 클라우드와 KTDS 등의 KT그룹 내 주요 기업과 티맥스그룹 산하의 8개 기업, 퍼시스그룹 등 총 25개 기업이 참여해 KT 에이블스쿨이 양성한 우수한 디지털 인재를 대상으로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500여명의 KT 에이블스쿨 5기 교육생들은 이 자리에서 각 기업별 채용 담당자와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 현직자를 만나 자유롭게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 교육생은 “사업 기획부터 데이터 분석, AI, 웹 개발 영역까지 프로젝트 형태로 접하며 집중적으로 쌓아온 실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캠퍼서 서울 KT 에이블스쿨 잡페어 현장에서 에이블스쿨 5기 교육생들이 채용 정보를 얻고 있다.

무 경험이 확실한 경쟁력이 되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많은 직무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줄 아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기업에서는 코딩 실력도 중요하지만 AI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문제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다”며 “프로젝트를 지속 수행하는 에이블스쿨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취업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천우 기자

삼성전자, ‘공항 콘셉트’ 갤럭시 스튜디오 인기…30만명 돌파

AI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6 등 신제품 모두 체험 가능 공간 휴가철 맞아 여행 떠난 것처럼 갤럭시 혁신 기능 경험 큰 호응



삼성스토어 홍대에 위치한 ‘갤럭시 스튜디오’에 공항 콘셉트로 꾸며진 체험공간.

삼성전자는 지난달 11일부터 운영 중인 ‘갤럭시 스튜디오’의 누적 방문객이 30만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최초의 AI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6와 더불어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갤럭시 워치7, 갤럭시 링, 갤럭시 버즈3 시리즈의 갤럭시 신제품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더현대 서울,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맞춰 공항 콘셉트로 꾸며진 체험공간에서는 마치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기분으로 ‘갤럭시 AI’의 혁신 기능을 체험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공항 체크인(Check-in) 카운터 콘셉트로 꾸며진 체험존에서는 갤럭시 Z 폴드

6·Z 플립6의 듀얼 스크린 통역 기능을 활용해 외국인 직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체험하고 퍼스트 클래스존에서는 ‘갤럭시 Z 폴드6’의 대화면으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감상해 보는 식이다.

특히 여행 인증샷의 상징인 보딩 브릿지(탑승교) 존에서는 ‘갤럭시 Z 플립6’의 자동 잠금기능을 활용해 최적의 구도로 기념 사진을 촬영해 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신제품을 체험하고 SNS에 후기를 남기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6 △갤럭시 워치7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갤럭시 스튜디오를 찾은 한 방문객은 “공항 콘셉트의 공간에서 제품을 체험하니 진짜 여행 온 것처럼 설렌다”며 “여름 휴가 갈 때 ‘갤럭시 Z 폴드6·Z 플립6’의 다양한 AI 기능을 사용하면 더욱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천우 기자 lcw@ekn.kr

LG전자 “캄보디아 청소년들에 희망 심는다”

LG, KOICA 설립 기술교육기관 ‘희망직업훈련학교’ 졸업식 LG전자, 학생들 역량 개발 집중 기자재 제공,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졸업이후 취업 활동도 적극 지원 유망 산업체와 협약, 취업 기회 마련



‘캄보디아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LG전자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의 졸업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희망직업훈련학교는 LG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등에 설립한 기술 교육 기관이다. 해당 국가의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기술 역량을 갖춰, 안정적인

일자리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LG전자는 희망직업훈련학교 학생들

이 각자 역량 개발에 집중하도록 △교실 리모델링 및 교육 기자재 제공 △우수 및 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지급 △강사 역량

강화 교육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졸업 이후의 취업 활동도 적극 돕는다. 취업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 상담을 진행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현지 유망 산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인턴십 등 취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졸업식에 참석한 전자분야 졸업생은 “전자 분야는 전통적으로 남학생들의 선호가 높고 여학생들이 진출하기 쉽지 않은 분야였다”며 “희망직업훈련학교에서 전자분야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고, 성별의 제약을 넘어 냉동설비 기업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로 답대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Life’s Good의 진정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세계 곳곳의 청소년들이 각자의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우 기자

광주시·전남대·KIAT, 이차전지 인재 양성 맞춘

4년간 국비 120억 확보...융합전공 개설 등 전문체계 구축

광주광역시와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전남대학교와 관련 연구기관, 지역 이차전지 기업들과 함께 이차전지 분야 학사급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전남대학교·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차전지 인력양성 사업계획서를 최종 확정하고, 지난 2일 전자협약을 체결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협약은 지난 7월 초 교육부의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정 및 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 대학(전남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한양대학교)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KIAT는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관리와 사업비 지급, 단계별 평가 등 이차전지 분야 학사급 인재 양성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방향 설정을 제시한다.

전남대학교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단계별 사업 추진과 목표 달성 등 사업을 실행한다. 전남대는 1년에 50명 이상의 산업 수요형 이차전지 인재를 길러낼 계획이다.

광주시에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인재양성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으로 △이차전지 융합전공 개설 및 운영 △전문장비 구축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우수교원 확보 △기업 연계형 실습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 △취업지원 프로그램 △장학제도 운영 등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전남대학교와 관련 연구기관, 지역 이차전지 기업들과 함께 이차전지 분야 학사급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특 학생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대학교는 4년간 국비 120억원과 함께 전국 최초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이라는 지위를 선점하게 됐으며 추가로 광주시는 8억원, 전남대는 12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지역 이차전지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기존 전남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차전지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사업'과 연계해 전문적인 이차전지 인재양성 사다리를 보다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이어 올해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광주시의 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가길 인재양성과 산업 육성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기반을 잘 다져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경기도, 티메프 피해기업에 '특별경영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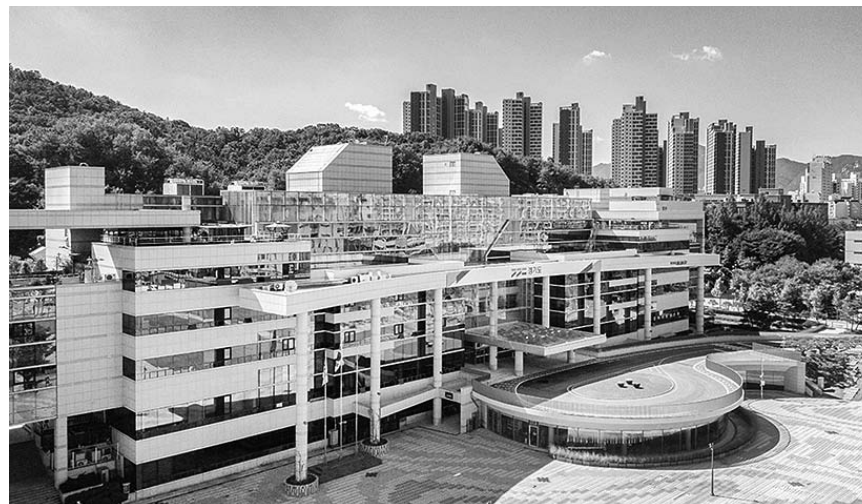
(티문-위메프)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산금에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도움'

경기도가 티문-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등 10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 연쇄부도 우려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원 대상은 티문-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 융자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로 지원한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다. 융자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정산을 받지 못한 금액(판매금액)만 지원하는데 비해 경기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으로 경영위기 해소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는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

사정도 당기 매출액 1/3에서 1/2로 확대 완화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은 기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평가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세부내용은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와 지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보보증재단 이차지원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태로 자금위기가 경영위기로 이어져 자칫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자금 시행이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강근주 기자 kjjoo0912@ekn.kr

인천시,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 조림지 몽골 정부에 이양

인천시는 지난 3일 몽골 다신칠링술에서 몽골 다신칠링술청, 푸른아시아 네트워크 몽골지부 관계자와 함께 '조림지 이양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몽골 정부와 체결한 '몽골 사막화·황사방지사업 추진협약'에 따라 진행된 인천 희망의 숲 2단계 조성 사업을 완료(2017.12.)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인천 희망의 숲 가꾸기 사업은 2008년 시민 주도로 시작한 1단계 '황사예방 희망나무 심기'에서 출발해 2013년부터 UN사막화방지협약에 따라 사막화·토지 황폐화 현상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2단계 사업으로 발전했다. 특히 3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진행돼 2027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몽골 불간아이막 다신칠링술에 5년간 45ha에 6만여 나무 심어 "사막화방지 위해 지속적 지원"

이번 이양된 조림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인천 희망의 숲 2단계 조성지로, 몽골 불간아이막 다신칠링술에 5년간 45ha에 6만여 주의 나무를 심은 지역으로 이 사업에는 예산(9억 14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양 후 몽골 다신칠링술에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시는 내달 중 민간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생,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단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 성긴하이르한에 조성된 조림지에서 2024년 인천 희망의 숲 식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몽골 다신칠링술 조림지 이양 협약식 모습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황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3년부터 진행한 민·관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2027년까지 몽골 사막화방지를 위한 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김국장은 이어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인천시의 대외협력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서 개도행사

경기도는 4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도행사를 안산시 선부동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오는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도행사에는 선감학원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약 60명이 참석해 묵념·추모사·헌사·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도는 개도행사에 앞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으며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도는 개도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

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부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마순홍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개도행사를 시작으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기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경기=송인호 기자

안동시, 빈집 철거사업 추진...국비 3억5천 확보

파손된 빈집·도심지 3등급 빈집 대상

안동시는 농촌지역 도심지 이주와 인구감소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수조사에 따르면 현재 안동시내 빈집은 총 786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은 주민안전, 위생, 악취, 경관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빈집을 방치하면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지역 환경이 악화되고 주민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시는 국비 3억5천5백만 원을 확보하고, 일부 파손된 빈집과 도심지 3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직접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철거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우선적



노후 불량 빈집

으로 정비하며, 올해 말까지 철거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예산만으로는 빈집 정비가 어려웠지만,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졌다"며, "빈집 철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빈집 활용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의정부시, 시민주도 '의정부 8경 선정' 추진

외래 방문객에 관광지 소개 노강서원·망월사 등 후보지

의정부시가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의정부 8경(景)'을 선정한다. 역사 산물로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관광지에 '의정부 8경'이란 이름을 붙여 관광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외래 방문객에게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부터 의정부시는 시민 추천을 받아 노강서원을 비롯해 △도봉산 반

쪽바위 △망월사 △무궁화동산 △미술도서관 △사패산 △서계 박세당 사림재 △송산1호 수변공원 △송산사지 △수락산 도봉봉 △신숙주 선성묘 △음악도서관 △의정부2동 성당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천문대 △의정부컬링경기장 △자일산립육장 △정문부 장군묘 △충량천 △직지동린공원 △희롱사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등 24곳을 의정부 8경 후보지로 선정했다.

의정부8경 심의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위원들은 문화 분야 전문가와

내 대학 교수, 민간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거나 역사·문화 자원으로서 의정부 가치를 지닌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광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의정부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진 후보지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의정부8경 최종 선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승수 문화예술과장은 4일 "이번 의정부8경 선정과정은 단순히 관광명소 선정을 넘어 지역사회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강근주 기자

옥계항서 몽골 수출화물 선적 강릉시, 수출허브 첫 발

강릉시 옥계항을 통해 도내 4개 시군의 기업생산물도 몽골 수출길에 올랐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강릉, 춘천, 원주, 홍천에 소재한 13개 기업에서 농수산물 가공식품과 화장품류 등을 옥계항에서 선적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 수출선적에서는 강릉시 생산품만 취급했다면 이번에는 지역을 크게 확대해 도를 대표하는 수출 허브로 성장하는 첫발을 내딛은 의미이다.

강릉=박예스 기자 ess003@ekn.kr

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 '열사병 10분' 생사 갈린다

■ 생명 위협 '온열질환' 종류와 대처법

열사병·일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 5개로 분류
40℃ 이상 고열·의식 장애 동반 열사병 가장 위험
소아·노약자 체온조절 기능↓ 정상 성인 70% 이하
체온·수분 관리 필요... 가벼운 샤워는 숙면에 도움

장마가 끝나고 8월에 접어들자마자 극한의 폭염과 열대야(熱帶夜) 현상이 연일 이어지면서 만성질환자·노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무더위 건강관리'에 적색경보가 켜졌다.

기상청은 5일 전국에 폭염특보를 발령했다. 일사병·열사병·열실신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급증하고, 사망자 또한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열사병 환자와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여행, 물놀이 등 야외 액티비티 체험 등 평소보다 신체활동이 활발해 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상 자칫 과도한 일사량 노출이나 체내 수분(땀) 유출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자초하게 돼 각별한 자제와 주의가 요구된다.

◇ 온열질환 집중발생 오후 2~5시... 무리한 야외작업·운동 피해야

온열질환이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체온의 상승이나 수분·전해질 부족 등이 발생하는 여러 신체 이상을 말한다. 열사병, 일사병, 열피로(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심부 체온이 40℃를 넘는 고체온에다 의식 장애가 동반되는 열사병이 가장 위험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린이(체온조절 기능 미숙)나 노약자(체온조절기능 저하)는 정상 성인의 60~70%밖에 방어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인체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체온(열)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뇌 중추에서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혈압·심장병·당뇨병·콩팥병 등 만성환자들은 보통의 어린이나 노인보다 더 위험하다. 정상인 경우에도 코로나19 감염을 하면 온열질환을 피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심장(심근경색·부정맥·심부전 등)까지 겪게 된다. 잠을 제대로 못잔 상태에서도 체온 조절 및 방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노태호 원장(노태호 바오로내과)은 "폭염에 시달려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규칙해지면 우선적으로 몸을 기대거나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 추이에 따라 병원에 가거나 119를 부르라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당뇨병 환자는 무더위에 노출되면 땀을 흘리면서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이다. 당분 덩어리인 빙과류나 정량음료는 혈당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냉수나 시원한 보리차·녹차를 마시거나 수분 함량이 많고 당도가 낮은 과일·채소를 먹으면 좋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는 "당뇨병 환자는 자율신경에도 합병증이 생겨 뜨거운 야외와 차가운 실내 환경에 교대로 노출되면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구급활동의 70%는 오후 2~5시 사이에 이뤄졌다. 이 시간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 오후 5시) 야외작업·운동 등을 피해야 한다.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기, 규칙적으로 물 마시기, 외출 때 햇볕을 차단하고, 햇볕과 밝은 색의 옷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이 더위를 피해 나온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입기 등이 안전수칙의 기본이다.

◇ 열사병 10분 방치해도 치명적... 체온 39℃ 이하로 빨리 내려야

열사병은 온열질환 가운데 가장 위험하다. 10분만 방치해도 생명이 위협받는다. 더운 공기와 강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 급격히 올라간 체온을 제대로 낮추지 못해 생긴다.

무더위와 밀폐된 실내 공간 등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작업이나 운동으로 상승한 몸의 열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온에 노출된 후 40℃ 이상의 고열이 있지만 땀이 잘 나지 않으며 발작이나 혼수 같은 응급상황이 동반된다.

응급실로 빨리 옮겨져도 급격히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해야 한다.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붓거나 얼음물에 몸을 담가서라도 체온을 '39℃ 이하'로 빨리 내려주어야 한다.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을 뿌리면서 수건이나 부채로 계속 부채질을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을 먹으면 기도가 막혀 더 위험할 수 있다. 응급처치에도 회복이 잘 안되면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준다.

열탈진(열피로)은 고온 환경에서 수분 보충이 원활하지 않거나, 장시간 땀을 많이 흘리면서 염분이 적은 저농도의 물만 보충했을 때 흔히 일어난다. 피로, 기력 저하, 어지럼증, 두통, 오심, 구토, 근육 경련 등을 호소한다. 체온은 40℃ 미만이고 대개 땀을 계속 심하게 흘린다.

이런 상태를 제대로 처치하지 않으면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켜 옷을 벗기고 바람으로 체온을 낮춘다. 구토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의식이 뚜렷하며, 빈맥이나 부정맥 없이 심한 고열상태가 아니면 수시간 내에 회복된다.

열경련은 근육 경련과 통증이 특징적이다. 몇시간 동안 격렬한 활동을 한 직후나 휴식·샤워 중에 주로 종아리, 허벅지, 어깨, 배 근육에서 나타난다.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리면서 물만으로 수액을 보충해 혈액에서 나트륨 농도가 감소하면 흔하게 발생한다. 체온은 정상이거나 올라갈 수 있다. 우선 경련이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이온음료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열실신은 더위로 인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말한다.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탈수가 되면 체온을 낮추려 혈액이 피부

쪽으로 쏠려 몸속의 장기나 뇌에 피의 양이 부족해진다. 누워서 다리를 올리며 안정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호전이 잘 안되는 경우 수액주사 치료 필요하다.

열사병과 같은 심각한 단계에서는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해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 보충과 열을 떨어뜨리는 치료와 동시에 중환자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오상훈 교수는 "열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둔한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들은 온열질환 발생 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항상 날씨 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장시간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 잠들기 전 냉수샤워, 술·커피·수박 섭취 자제... 15~30분 낮잠 권장

무더위 스트레스는 한낮이 아닌 밤에도 찾아온다. 밤 시간대 기온이 25℃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에는 잠자는 동안 체내의 온도조절 중추가 발동한다.

중추신경계가 흥분하고 심박수도 증가한다. 폭자는 단계인 렘(rem)수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열대야에 시달리면

아침이 되어도 온몸이 무겁고 피곤함을 느끼며, 낮에는 꾸벅꾸벅 졸거나 두통·소화불량까지 일어나기 쉽다.

열대야 속에서 조금이라도 쾌적한 숙면을 취하는 방법으로 전문의들은 잠자기 1~2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하기를 권고한다. 그러나 덥다고 잠들기 직전에 목욕하거나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오히려 잠이 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또한, 열대야에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하는 것은 숙면에 안 좋다. 알코올의 수면 효과는 잠깐뿐이고 오히려 숙면하는데 방해가 된다.

커피인은 든 커피, 홍차, 초콜릿, 콜라와 담배는 각성효과가 있어서 숙면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한다. 잠들기 전 수박이나 음료를 많이 먹으면 배뇨작용을 촉진해 잠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초저녁의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은 숙면을 돕지만 잠들기 2시간 이내에 운동을 하면 상승한 체온으로 잠들기가 더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잠을 청한 지 15분 내에 잠이 오지 않으면 잠자리를 벗어나서 몸을 식힌 후 다시 잠을 청하는 것이 좋다. 더워서 잠들기 힘들다고 에어컨을 장시간 강하게 틀어놓고 환기를 안 시키면 '냉방병'이 생길 수 있고, 갑작스러운 체온 저하와 혈액순환 장애로 피로감이나 두통이 오고 심하면 신경통, 소화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잠을 잘 때 에어컨은 강하게 잠시 틀어놓았다가 끄는 것보다는 약하게 여러 시간을 틀어 놓는 것이 낫다.

한 의사 변희승 원장(여의도 한의원)은 "열대야에 뒤척이며 낮잠을 자기보다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좋으며 잠이 모자라 낮에 졸릴 땐 15~30분 정도 가벼운 낮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면서 "일어난 후 미지근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스트레칭이나 체조, 산책 등을 통해 활력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효순 메디컬 전문기자 anytoc@ekn.kr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재활센터 개소식에서 대학 및 병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재활센터로 빠른 회복 지원"

'간병로봇 지원사업' 선정... 환자에 맞춤형 보행 재활 훈련 제공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문종호)은 5일 "로봇재활센터를 개소해 다양한 보행 장애 환자에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개소식에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문종호 병원장, 김병성 진료부원장, 이유경 연구부원장, 석현 재활의학과장, 이종식 사무처장, 김승원 재활치료팀장, 김현정 재활의학과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 4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간병로봇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최신 보행재활로봇 '엔젤렉스'와 '모닝워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 손상 △발달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맞춤형 보행 재활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착용형 보행재활로봇 '엔젤렉스'는 보행 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평지와 계단에서 지속적인 보행훈련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타입의 보행보조

로봇이다. 일어서기, 앉기, 서있기,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평지 보행 등 총 7가지 보행훈련 모드를 제공하며, 지면 접촉 센서가 환자의 보행 의도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섬세한 관절 보조력을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훈련데이터 측정과 사용자별 보행 패턴 및 능력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어 체계적인 보행훈련이 가능하다고 병원은 소개했다. 엔드이펙터형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도 착용형 체중 지지 방식으로 치료 준비 시간이 짧고, 중증 소아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모드를 지원해 안전하고 편리하다.

속도 가변, 궤적 가변, 구간 반복, 부분 궤적 등 다양한 능동 보행 모드로 효과적 단계적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흥미로운 가상현실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관절 각도와 지면반력, 체중지지 및 족저압 분포, 균형감각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박효순 메디컬 전문기자

우리들병원, '최소절개·무수혈' 척추디스크 시술 입증

'전방접근 무수혈 척추유합술' 개발
척추관협착증·퇴행성 디스크 등 치료

척추 디스크가 상하고 척추가 불안정해지면 인공 보형물을 삽입해 척추의 안정화를 돕는 '척추유합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척추유합술은 접근 방법에 따라 수술 방식과 회복 기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치료이다.

과거 뒤쪽에서 병변 부위로 접근하는 후방 접근법을 시작으로 추간공 접근법, 측방(옆구리) 접근법, 그리고 가장 최신 방식인 배꼽 근처 복부를 통해 접근하는 전방 접근법까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우리들병원(회장 이상호)은 5일 "허리뼈와 주변 정상조직을 손대지 않고 최소 절개로 복강내 공간으로 접근해 디스크 변성과 척추뼈 변형을 고치는 '전방접근 무수혈 척추유합술'을 개발,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후방 전위증,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등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방접근 무수혈 척추유합술은 복부에 2~3cm 최소한의 절개로 상한 디스크를 제거하고 뼈의 정렬을 맞춘 후 인공 뼈를 넣고, 역시 최소 상처로 등 뒤에서 젓가락으로 찌르듯이 핀으로 고정해주는 최신 수술법이다.

해부학적 구조상 뒤에서는 삽입할 수



전방접근 무수혈 척추유합술 장면.

없는 인공뼈도 앞쪽으로 삽입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척추를 유합하고 재건할 수 있으며, 척추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신경 유착의 위험이 적어 수술 후 허리통증이나 다리 저림 같은 후유증이 거의 없다. 최소한의 상처를 내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없고 입원 기간이 짧아 사회 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상호 회장은 "전방 접근 유합술은 치료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오랜 훈련과 경험, 숙련도가 중요하며 복부 안의 혈관들이 다치지 않도록 복부·혈관과의

협진이 꼭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들병원은 척추변형 수술, 재수술, 흉추 수술 같이 고난이도 수술의 경우 신경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팀을 구성해 수술 계획부터 협업하는 팀 서저리(Team Surgery)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상호 회장은 "유합 수술이 필요한 치료 단계인 경우에도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과거 크게 절개하고 후유증이 큰 수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두려움이 크다"면서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안전하고 성공률 높은 최신 기술을 통해 수술 후유증의 위험 없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순 메디컬 전문기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스마트케어센터' 개소

경기도 수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스마트케어센터'를 열고 환자 중심의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5일 성빈센트병원에 따르면, 스마트케어센터는 최첨단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이용한 진단, 검사, 교육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즉, 심전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심부전을 조기에 진단하는 'AI-EKG'를 비롯해 △삼막을 촬영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닥터 눈(Dr.No.oo)' △스피 수술 전후 또는 호흡기 환자들의 폐호흡 재활훈련을 돕는 '에드레이블' △손가락 체열 없이 혈당을 연속 측정해 관리하는 '리브레' △통증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올론' 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의료장비들을 자랑한다.

또한, 전담간호사가 센터에 상주해 환자들에게 스마트 의료기기를 활용한 검사와 관리를 진행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및 디지털 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질병을 예측·예방하는 등 의료진과 환자간 소통을 확대해 양질의 스마트 헬스케어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성빈센트병원장 임정수 명예 수녀는 "스마트케어센터 개소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변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순 메디컬 전문기자

자원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들

EE칼럼
Energy&Environment

허은영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미국과 유럽은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에너지 자원 안보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국가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양 진영 모두 목표의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유럽은 보유한 북해유전과 프랑스 원자력에 의하여 독일의 LEEN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사업과 같은 에너지 자원 절약 프로그램의 가동 및 북유럽의 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자국 내에서 대량의 셰일가스과 셰일오일을 값싸게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술개발과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을 진행하여 두 진영 모두 에너지자원의 자급자족률을 높이고 동시에 온실가스배출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지난 7월 말, 우리나라에서도 자원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모두 좋은 정책들이 발표되어 반갑다. 먼저 7월 말에 올레 초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산업부가 제정,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 관련 기관들을 자원안

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계획 수립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진단평가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비축 담당 기관 역시 지정하여 핵심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과적인 비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시행 시기인 2025년 2월 7일 이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비롯한 공급망 3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합의하여 통과시킨 매우 드문 사례이며, 이를 통하여 약 5조 원가량의 기금을 조성하고 경제부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꾸려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시행령과 규칙의 제정을 주무 부서인 산업부가 진행한 것이다. 직접적인 에너지자원 안보는 물론 재생에너지시설, 전기차, 배터리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리튬 등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기후변화협상 대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사례는 환경부가 7월 말에 발표한 14개의 '기후대응담' 구축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래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그릇이 필요하다고 발표의 배경을 설명하였는데, 추가되는 담의 효과로는 기후변화로 달라지고 있는 우리나라 강우량과 강우 시기의 변화에 대응하고 아울러 친환경 발전 방식인 수력발전용 늘리고 동시에 새로이 지어질 예정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의 용수 문제 역시 일부 해소 가능할 것 등이다. 이 역시 수자원의 안보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

의 대응에 모두 효과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최근 중동 전쟁의 심화 등으로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보호무역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자원 부국과 주요 무역 협력 국가들이 1990년대부터 유지하던 자유무역 기조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보호무역 기조로 선회하고 있음은 이제 자명하며, 이러한 추세는 이번 연말 미국 대선 이후에는 더욱더 증가할 예정이다.

수출이 자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보호무역 방향으로의 국제무역 기조의 변화는 전혀 달갑지 않은 변화이다. 이러한 시기에 21대 국회 가 손을 잡고 공급망 3법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011년 이후 건설이 없었던 다목적댐을 추가로 짓기로 하는 등 자원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물, 도로 등을 위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빨리 투자를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경제성장 및 자원안보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역시도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혼자 이루기 어렵기에, 주변국 및 주요국과 연구, 산업 단지 공동 구축, 핵심 자원의 공동구매/비축 등 지역 공동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자간, 다자간 외교활동 역시 정부와 국회에서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여 본다.

'티몬사태' 피해 키운 금융당국 감독실패

데스크 칼럼

송재석

금융부장



도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와 근간을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뻔뻔하기까지 한 큐텐의 행보와 별개로 미온적인 대응으로 이번 사태를 키운 정부 부처, 당국의 태도 역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과 견제장치는 말할 것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티몬에 미상환, 미정산 금액과 추가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는 별도로 관리하라고 요청했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감독장지도, 사전경고도 하지 않았다.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이임식에서 후배들에게 남긴 말은 "미안하다"였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불확실성에 도처에 깔려 있음에도 소모적 정쟁으로 국력이 소진돼 가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후배들에게 책임감과 짐을 남기고 떠나는 것 같으며 무거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은 민생은 제쳐둔 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놓고 걸맞다면 정면충돌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김 전 위원장의 비통을 넘겨받은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한 채 바로 업무에 임했다고 한다. 그는 취임 직후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티몬 사태의 원인을 제정한 티몬·위메프의 대주주, 경영진에게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서슬 퍼런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당국 수장이 취임하자마자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특정 기업을 겨냥해 책임을 물겠다고 발언한 것은 드문 일이자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만큼 취임 직후 시급한 과제를 마주한 김 위원장의 무게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국회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의 발언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구 대표는 판매대금을 포함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인수자금이 썼고, 회사에 남은 현금도 없다고 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 및 결제하면 판매자는 대금을 최대 70일 뒤에 받는데, 이 사이를 틈타 큐텐이 판매자에게는 피 같은 거래대금을 기업경영자금 등 다른 용

도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와 근간을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뻔뻔하기까지 한 큐텐의 행보와 별개로 미온적인 대응으로 이번 사태를 키운 정부 부처, 당국의 태도 역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과 견제장치는 말할 것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티몬에 미상환, 미정산 금액과 추가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는 별도로 관리하라고 요청했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감독장지도, 사전경고도 하지 않았다. 티몬, 위메프의 월 이용자 수는 869만 명에 달했지만 몇 해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다.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경영개선협약(MOU)을 맺었지만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이끌어 못했다. 강제성 없는 MOU 체결이 전부였던 틈을 타 티몬은 할인쿠폰 등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을 대거 동원하다 막판에 와서 야박기를 들었다. 정부와 감독당국이 사실상 특정 업체에 놀이터를 만들어 준 것이다.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규제에 제약이 있었다는 공색한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를 보호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했고, 감독이라는 칼날을 스스로 무리게 만들었다. 이번 티몬 사태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시계는 더 이상 금융의 힘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병환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은 취임 직후, 그리고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시급한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티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확고한 재발방지 체계와 감독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티몬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것이 자명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티몬 사태처럼 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율규제라는 이름이 흑역사 '자유경영'으로 오인된 사례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국산 항공엔진 개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기자의 눈

나광호 산업부 기자
spero1225@ekn.kr



여 단계적 개발을 진행한다.

한화는 45년간 엔진 1만대를 만든 저력을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에 뛰어 들었다. 현재 GE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F414 엔진을 생산 중으로 지난달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독자 모델 프로토타입도 최초 공개했다. 내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5000명 규모의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팩토리도 구축한다. 두산도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작동 원리도 유사하다. 1680도의 환경에서 견디는 냉각·코팅 기술을 확보한 것도 강점이다. 국방과 학연연구소(ADD) 주관 '1만파운드급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정부가 발주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설계도 수행 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공엔진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아직까지도 GE와 미국 프랫앤워트니(P&W), 영국 롤스로이스(R

R) 3개사에 필적할 곳이 없다. 중국이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들 '3대장'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분야에서 단번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실패의 낙인을 찍고 업체에 지체상금을 물리고 소송전을 벌이는 방식이 이어진다면 향후 항공엔진뿐 아니라 첨단무기체계의 국산화 시도 자체가 막힐 공산이 크다.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이례적인 속도로 개발 중인 보라매의 사례를 들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금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K-항공엔진을 통해 자주국방에 한걸음 다가서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 나올 국산전투기가 높은 가동률을 앞세워 안보 역량과 경제적 효과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에너지경제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www.ekn.kr	
우) 04516	발행인 송용희	시장 임정효	주필 신연수	편집국장 송영택	인쇄인 정희택
서울 중구 새문안로 26	· 정치경제부 02-6749-3118	· 기후에너지부 02-6749-3140			
청양빌딩 5층	· 산업부 02-6749-3114	· 국제뉴스부 02-6749-3173			
대표전화 02-850-0114	· 금융부 02-6749-3172	· 전국부 02-6749-3119			
대표팩스 02-867-0453	· 자본시장부 02-6749-3170	· 종합편집부 02-6749-3127			
광고문의 02-6749-3124	· 유통중기부 02-6749-3147	· 디지털콘텐츠국 02-6749-3151			
구독문의 02-6749-3125	· 건설부동산부 02-6749-3160				
MICE 사업문의 02-6749-3149					
독자서비스센터 02-714-1212					
	· 1989년 5월 26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가-50065호	· 구독료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월 20,000원 1부 1,000원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복지미디어 그룹

복지TV

장애인신문

웰페어뉴스
Welfarenews.net

복지 TV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전국 모든 지역에 송출되는 사회복지 전문방송입니다

장애인 소외계층의 참여와 권리행사 보장을 위한 국내 최초 장애계 전문지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며, 심도 있게 전달하는 인터넷 뉴스입니다

